

성경 예언에 따른

# 메시아

토니 알라모

본서는 개역 한글판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흠정 영역,  
원본 아람어, 헤브루어, 그리스어판 성서를 참조하였습니다.

## 목차

머리말 . . . . .	3
I. 메시아의 증빙 자료들 . . . . .	21
II. 메시아의 삶 및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예언들 . . . . .	40
III.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의 예언상의 역설 . . . . .	54
IV. 메시아(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예언 가. 시편 22편 . . . . .	72
나. 이사야 53장 . . . . .	81
V.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기술하는 예언 . . . . .	98
VI.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그리스도)의 신성 . . . . .	109
VII.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에 나타난 상징과 간접예언들 . . . . .	119

기록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

## 성경 예언에 따른 메시아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사도행전 10:43).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시편 40:7, 히브리서 10:7).

### 머리말

역사상 인간에게 제시된 가장 경이로운 드라마--구약 성경에 서는 예언으로, 그리고 4개의 복음서에서는 전기로 쓰여진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실 하나가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고 부활하기도 전에, 자신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이 명백히 드러난 사람은 세계 역사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예수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벌써 대중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으며,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삶의 실제 기록을 그 옛 기록들과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백한 기적이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sup>1</sup>

글 속에 나타난 이 기적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잠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조지 워싱턴

<sup>1</sup>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도 이 놀라운 사실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그분의 삶과 행로, 고난, 영광 모두가 구약 성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벌써 자신의 가계, 출생시간, 예비자, 출생지, 출생방법, 유년기, 성년기, 가르침, 인품, 인생행로, 전도, 받아들여짐, 버림받음, 죽음, 매장, 부활, 승천 등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미리 기록되어진 분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과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500년 전에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250년 전에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아닌 20, 25명 가량의 예술가들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밖의 어떤 다른 인물의 생애를 그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미리 써 놓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남겨진 어떤 기록에서도--비종교적 기록이든 종교적 기록이든 간에--미리 쓰여진 그리스도의 생애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에 버금가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생생한 묘사의 영감은 속세의 예술가의 작업실로부터가 아니라 천국의 화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미리 쓰여졌다는 이 기적적인 사실과 그것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통찰력만이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완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모든 사려 깊은 독자들은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베드로후서 1:21)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 이 사실이 보여주는 네 가지의 중대한 사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나사렛 예수로 하여 이루어진 신약 성경에서의 실현이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언 속의 메시아를 그리셨던 하나님의 손이 또한 역사 속의 예수를 만들어 내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적에 대한 필연적인 결론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 인간이 그토록 놀라운 경이로움을 글로 쓰거나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이는 처음부터 종말을 알고 계시며 자신의 모든 말씀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성경의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임을 입증합니다.

(3)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자유롭고 도덕적인 행위자들인 무수한 인간들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전지(全

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널리 퍼진 불신과 무지와 반항의 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의 완벽한 실현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입증해 줍니다.

(4) 이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리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셨던 인간,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예언의 나무의 열매이며, 기독교는 벌써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500여 년 전에 첫 윤곽이 잡혔던 계획의 실현입니다.

### 이루어진 예언은 성경에만 존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현된 예언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성령의 감동을 증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뚫을 수 없는 벽, 즉 진정한 "철의 장막"이기에, 성령의 감동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미래의 예언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언과 실현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공백이 있으며, 확실한 실현이 따르는, 그리고 그 예언들이 결코 약속빠른 추측이 아님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명백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예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사실은 완벽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세주에 관한 최후의 예언과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의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sup>2</sup> 물론 기원전 400년보다 훨씬 전에 나온 예언

2.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편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편과의 사이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기원전 약 200년경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譯)**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기원전 약 28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Ptolemy Philadelphus)왕의 통치 기간 중에 착수되어 단기간 내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 전체의 **번역본**이 기원전 200여 년 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번역 원서인 구약 성경의 전편(全篇)이 그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기원전 1500년)로부터 말라기의 시대(기원전 400년)에 이르는 1100년의 기간 동안, 연이어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 형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 모든 예언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물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관하여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너무도 상세하고 너무도 방대하기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언들이 너무도 완전하게 이루어졌기에, 구세주에 관한 예언만 공부하면 이 세상에 누구든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과 그 예언의 실현만 충분히 이해하면, 의심을 품는 교인 또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어느 회의론자나 비판가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언들을 신중히 연구해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확고부동한 불변의 자리인 "만세 반석되신 주"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 **"예언"은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

성경의 모든 중요한 가르침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반대로, 구원과 파멸에 관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들임에 달려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말씀인 천국의 계율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인정되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정 자신의 계시된 뜻을 인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자신의 말씀임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택하신 방법은 보통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그 방법은 베푸심을 통한, 그리고 세부적이고 특정한

예언의 성취를 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하나님의 봉인입니다. 이 봉인은 결코 위조되어질 수 없으며, 증명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에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지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선견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속성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우상신들에 맞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이사야 41:21-23).

이슬람교와 불교와 같은 거짓 신앙은 가장된 기적 위에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둘 중 어느 쪽도 그리고 세계 역사상 존재해 왔던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예언을 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새 일을...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이사야 42:9) 고 하신 "여호와, 창조자"(이사야 40:28)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의 특이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주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2:8).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견하시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을 성경 속에 담아두기로 정하셨습니다.<sup>3</sup> 유대인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 국가들, 고대 도시들, 거듭난 기독교도, 최후의 날들 등을 포함하여, 성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 주

3.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성경 밖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예언을 지어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은, 조작하기는 하나 '쉬프트 수녀의 예언'으로 잘 알려진 운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년 전, 그 운문은 먼 옛날의 유물인 것처럼 나타나서, 증기 기관차의 발명, 영국 정치계에서의 디즈레일리(D'Israeli)의 출현...등등을 예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대단한 협잡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의 허위성을 밝혀내어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저는 이 모든 것이 (영국의) 찰스 힌들리(Charles Hindley)라는 한 사람에게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1448년이 아니라 1862년에 쓰여진 이 거짓 예언의 저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시인하였고, 순진한 대중들을 거짓으로 기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2천년 전의 예언에 의심을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 예언했던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처음 출판된 위조 문서를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언의 연대에 관한 주장조차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순성을 보여 주는 놀라운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A. T. Pierson 박사).

제의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예지(豫知)와 실현의 온전함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영역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참 예언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 46:9-10). (자신만이 예언하고 이를 수 있으며,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장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1-7,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19-21, 신명기 18:21-22, 이사야 41:21-23, 예레미야 28:9, 요한복음 13:19 참조 바람.)

어떤 일이 존재하기 오래 전에 벌써 훗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한 사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의 엄청난 위력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 예언의 실현이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은 배제

무모한 무신론자들이나 여타 비신도들은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언의 실현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연의 일치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모험적으로 발설된 예언은 충분히 참된 예언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예언에 시간, 장소 및 수반되는 사건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주어지면, 사건들이 어찌다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그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가망성은 거의 없어지거나 전적으로 불가능하여 진다. 따라서, 이교도들의 오래 된 예언들은 이 예언들을 만든 거짓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바를 늘 한두 가지의 특정 사항에 한정하고 또한 그 특정 사항들을

가장 보편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나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예언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고 또한 경미한 세부 사항 하나 하나까지도 실현해 보여진 예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고 또 그것들이 인간 예수 안에서 충족시켜진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수백 개가 아니라) 단지 50개가 들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확률 이론에 따라 수학자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르면, 이 예언들이 우연히 이루어졌을 확률은 1,125,000,000,000,000분의 1보다도 낮다. 이 50개의 예언에 단 2개의 요소를 더한 다음, 이들이 발생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두면, 이들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숫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낮아진다. 이 계산 정도면 비신도들에게 예언의 증거로부터 빠져 나갈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을 것임으로, **우연**이라는 모든 주장을 영원히 잠재우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정녀에게서의 태어나심, 죄 없고 거룩한 온전하심, 부활과 승천 등과 같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확실하고 명확하고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자주 읽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스가랴 9:9);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것이요"(이사야 40:10);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성전]에 임하리니"(말라기 3: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신명기 18:15).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관하여 말하였는데(이사야 11:1),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이사야 53:6). 옛 선지자와 선각자들은 "만국의 보배"가 올 시기에 관하여 자주 말했습니다(학개 2:7). (이사야 35:4, 창세기 49:10, 민수기 24:17, 시편 118:26, 시편 2:6, 예레미야 23:5-6, 이사야 62:11, 창세기 3:15도 참조 바람.)

###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성경의 중심 주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임하심-탄생, 온전함, 업적,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은 성경의 위대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묶는 끈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밝혀졌고, 신약 성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 보통 수준의 독자도 성경은 이해 가능

가장 평범한 독자도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메시아의 사람됨과 업적에 관한 궁금한 옛 예언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계시들의 점진적인 진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 사항으로 좁혀져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하시는 이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그 예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이 이미지를 자신의 마음 속에 확실하게 고정시킨 다음,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을 읽어 가면서, **역사**의 인물이신 나사렛 예수와 선지자들에 의하여 묘사된 구약 성경 속에서의 **예언**의 인물이 모든 점에서 어떻게 부합하고 일치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의 글쓴이들 사이에 아무런 결탁이나 접촉이 있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바, 이는 독자가 구약과 신약 속에 드러나 있는 묘사만을 비교함으로써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임하실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사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을 실현하고 그 신비로움을 벗기신 그리스도

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결론은 이 둘이 절대적인 조화 속에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 예언의 요약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실현과의 비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구원의 과업은 신구약 성경에서의 중심 인물인 약속된 메시아 한 사람에게 의하여 수행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창세기 3:15; 갈라디아서 4:4).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16),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시편 132:11, 예레미야 23:5; 사도행전 13:23), 메시아는 유다의 종족으로부터 오시기로 예정되었습니다(창세기 49:10; 히브리서 7:14).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옛 유대의 베들레헬에서(미가 5:2; 마태복음 2:1, 누가복음 2:4-6), 정해진 시간에 오시고(창세기 49:10, 다니엘 9:24-25; 갈라디아서 4:4),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기로 예정되었습니다(이사야 7:14; 마태복음 1:18-23, 또한 누가복음 1:27, 35). 위대한 사람들이 그분을 방문하고 경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시편 72:10; 마태복음 2:1, 11). 시기하는 왕의 분노를 통하여 죄 없는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예레미야 31:15; 마태복음 2:16-18).

대중 설파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는 자신에 앞서 먼저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이사야 40:3, 말라기 3:1; 마태복음 3:1-3, 누가복음 1:17).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로(신명기 18:18; 사도행전 3:20-22),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기로 예정되었습니다(시편 45:7, 이사야 11:2-4, 이사야 61:1-3; 요한복음 3:34-36, 마태복음 3:16-17, 누가복음 4:15-19, 43).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명령)를 좇아 제사장이 되기로 예정되었고(시편 110:4; 히브리서 5:5-10), "주님의 종"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들을 위한, 믿음이 많고 참을성이 많은 구세주가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창세기 17:5, 이사야 42:1, 6; 마태복음 12:18, 21).

메시아의 가르침과 행적은 갈릴리에서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고(이사야 9:1-2; 마태복음 4:12-17, 23), 훗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스가랴 9:9; 마태복음 21:1-10). 또한 성전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었습니다(학개 2:7, 9, 말라기 3:1-2; 마태복음 21:12, 고린도전서 3:16-17, 6:19, 고린도후서 6:16-18, 에베소서 2:18-22, 요한계시록 3:20).

여호와에 대한 메시아의 열망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기술됩니다(시편 69:9; 요한복음 2:15-17). 메시아의 가르침은 비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시편 78:2; 마태복음 13:34-35), 메시아의 가르침과 행적은 기적으로 특징 지워지도록 예정되었습니다(이사야 35:5-6; 마태복음 11:4-5, 요한복음 11:47). 메시아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버림받고(시편 69:8, 이사야 53:3; 요한복음 1:11, 요한복음 7:5)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그리고 "걸리는 반석"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이사야 8:14; 로마서 9:32-33, 베드로전서 2:7-8).

메시아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시편 22:6-20, 이사야 53, 스가랴 12:10, 시편 69:4, 이사야 49:7; 요한복음 15:18-25, 마태복음 2:13, 마태복음 26:67-68, 마태복음 27:28-44, 마가복음 8:31, 누가복음 4:28-29, 누가복음 23:5, 10-11, 요한복음 8:37, 요한복음 19장), 통치자들에게 거절당하며(시편 118:22; 마태복음 21:42-46, 요한복음 7:48-53), 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시편 41:9; 요한복음 13:18, 21),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며(스가랴 13:7; 마태복음 26:31-56), 은 30에 팔리고(스가랴 11:12; 마태복음 26:15), 그의 준가(몸값)는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치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스가랴 11:13; 마태복음 27:7). 메시아는 뺨이 후려갈겨지고(미가 5:1; 마태복음 27:30), 침이 뱉어지며(이사야 50:6; 마태복음 27:30), 희롱을 당하고(시편 22:7-8; 마태복음 27:28-31, 39-44), 두들겨 맞도록 예정되었습니다(이사야 50:6; 마태복음 26:67, 27:26,

27:30).<sup>4</sup>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시편 22편에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신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의 손과 발은 찢림을 당하나(시편 22:16,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9:18, 요한복음 19:37, 요한복음 20:25),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2:46, 시편 34:20; 요한복음 19:33-36). 또한 갈증으로 고생하시고(시편 22:15; 요한복음 19:28) 마실 것으로 초(식초)가 주어지며(시편 69:21; 마태복음 27:34), 범 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도록 예정되었습니다(이사야 53:12; 마태복음 27:38).

메시아의 몸은 돌아가신 후에 부자와 함께 묻히나(이사야 53:9; 마태복음 27:57-60), 썩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시편 16:10; 사도행전 2:31).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시편 16:10;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3:33),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오르시도록 예정되었습니다(시편 68:18; 누가복음 24:51, 사도행전 1:9. 또한 시편 110:1; 히브리서 1:3).

물론 이상의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신약 성경에서의 실현의 간략한 정리는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주요한 점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수백 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 자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스도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미리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신약

4. 예언은 실현과 대조해 가며 같이 읽을 경우, 가장 인상적입니다. 한 예로, 이사야 50:6과 신약 성경의 실현을 대조해 보십시오:

예언: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실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뱀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태복음 26:67).

성경에 그 사실을 충분히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셨고 충분히 증언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기적이었고, 세상의 어떤 문헌에서도 그에 필적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인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시저, 글래드스톤, 셰익스피어 등등--"...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자세히 고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성경이나 그 밖의 책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현된 예언에 의존한 거짓 메시아 또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sup>5</sup>

그러므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그 바탕을 굳건하게 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요한복음 8:56) 그리고 "...그[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실현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기 위하여, 산상 수훈에서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그것들을] **완전케 하려[이루려] 함이로라**"(마태복음 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특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모형"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의하여 "보내진 자"였습니다(요한복음 3:16-17, 요한1서 4:14, 히브리서 10:9).

자신의 가르침과 행적의 초기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5.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40명이 넘는 숫자의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으나, 예언을 이루어 자신의 주장을 확립한 자는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복수의 약속과 국민의 자만심만을 부추기는 감언으로 자신의 거짓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모든 예언을 이루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는 수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지금도 숭배되고 있습니다.

61:1-2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누가복음 4:16-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기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히브리서 10:5-7).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면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모든 독실한 구약 성경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셨습니다(요한복음 4:25-26). 베드로가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주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메시아의 칭호--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자신을 다윗이 주라 칭하였음을(마태복음 22:41-46)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자(사람의 아들)라는 칭호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니엘서에서 쓰였던 대로 자신을 그 메시아라는 칭호로 나타내셨습니다(다니엘 7:13; 마가복음 14:62. 또한 시편 8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께서는 시편 2편에서 쓰였던 대로 자신을 메시아라는 칭호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셨던 거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어떤 연유로든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기적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실현 속에 있었으며(이사야 35:5-6),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은 자신에 관하여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과 일치하였습니다(이사야 61:1-3, 이사야 42:1-4, 마태복음 12:17-21).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모두 예언되었던 그대로였습니다(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 40:3과 말라기 3:1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는 요한이 자신의 예비자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마태복음 11:10).

그리하여, 우리의 주님께서는 요한이 예언의 실현 속에 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이 바로 요한이 예비자로 온 목적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8:31).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는,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끝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22:37).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 기간 중 결정적인 시간동안, 예수께서 (검으로 기꺼이 자신의 주를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군단]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53-54).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55-56). 재판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로 하여금 맹세케 하고서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그

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가복음 14:60-62).

부활 후,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27). 그 후, 모인 제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44). 주님께서 여러 다른 상황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역설하셨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말씀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며,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현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한복음 10:35).

또한 예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누가복음 24:46-47). 이 위대한 말씀은 아마도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그리고 오늘날까지도--승리하시고 지배하시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으로부터도 메시아가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목격하였다는 똑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베드로전서 1:11).

###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저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증거를 갖고 있음**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비범함--신약 성경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실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성경을 함께 묶어 주는 끈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결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초대 신약 성경 교회 글쓴이들과 전도자들은 이를 명확히 간파하여,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실현을 끊임없이 지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8-25에서 동정녀로부터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마태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22-23, 이사야 7:14).

헤롯왕이, 질투심으로 분노하여,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헛되이 죄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을 때, 마태는 이 소름 끼치는 살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에 예언으로서 성경 안에 쓰게 하셨다가 그 때 실현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마태복음 2:16-18; 예레미야 31:15).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암시하거나 명시합니다. 베드로는 중대환 참회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의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메시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

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실현이라고 지적해 낸 신약 성경의 모든 경우를 이 간략한 논설에 다 나열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0:31에 기술되어 있듯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4권의 복음서 모두의 주된 주제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시기로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증거의 골자는 예수님이 모든 조건, 즉, 메시아의 온전성과 과업--메시아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고, 따라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sup>6</sup>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중심은,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논거였는데, 이는 그들이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내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이 기술하였던 메시아였다**는 것과 이 "나사렛 예수[를]...하나님께서...살리셨[고]...[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22-36)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문에서 행하였던 사도행전(사도행전 3:12-26)의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다음의 말로써 강력히 주장하면서 끝마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메시아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사도행전 3:17-19).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저[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0:43).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에서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사도행전 13:29-30).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 전파법은 사도행전 17:2-3에

6. 모든 사도들은 예언으로부터의 이 논증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주된 논증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논증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일반 개개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한 잘 알려진 사실들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 사이의 놀라운 일치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설하면서도 단적인 논증의 바탕이었기에, 이것은 일반적인 복음 전파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성경[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람들을 구원해 준 복음서를 정의할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약 성경의 사실들을 구약 성경의 예언 및 가르침과 결부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너희가...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이는 성경[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1-4).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저자들과 전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실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 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용문들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눈부신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짐"을 더 자세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주제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방대한 자료들을 아래의 7개의 소제목 하에 요약하여 보여 드리겠습니다.

- I. 메시아의 증빙 자료들
- II. 메시아의 삶 및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예언들
- III.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의 예언상의 역할
- IV. 메시아(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예언
- V.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기술하는 예언
- VI.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그리스도)의 신성
- VII.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에 나타난 상징과 간접예언들

## I. 메시아의 증빙 자료들

증빙 자료라고 하면, 위임장, 법률상의 문서와 같은 증명서 혹은 기록된 증거물로서 직책이나 지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들--예를 들어, 한 나라의 특사가 외국에 파견될 때에 자국 정부로부터 상대국으로 가져가는 증서--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구세주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궁전으로부터 가져오신 자신의 "증빙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입니다. 마태복음 제 1장에서 마태는 예수의 증빙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태복음 1:1).

###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 전달되는 우편물

다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우편물의 주소란에 수취인에 관한 예닐곱 가지의 명확한 세부 사항만 기입되어 있고 수취인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우편 배달이 가능한 곳에 만 살고 있다면, 그 우편물의 수취인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확히 가려내어 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만일 우리가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쓴다면: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매디슨 애비뉴 4143번지

레스터 B. 스미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그가 살고 있는 **한 나라**--미국--를 선택하여 다른 모든 나라를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확실히 찾아내어 그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가 살고 있는 **한 주**--일리노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주를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그 주에서 **한 도시**--시카고--를 가리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도시

를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한 집의 정확한 번지수--매디슨 애비뉴 4143번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다른 모든 집들을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사람만의 유일한 이름--레스터 B. 스미스--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을 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별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임하실 메시아에 관하여 명확한 세부 사항을 충분히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가려내고, 또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소"에 해당하는 예수의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예수의 "주소"에 포함된 이 세부 사항들, 특정 사항들이나 구성 요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참 메시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의 목록과 설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곧--그들의 누적 효과는 압도적입니다--세계 역사상 **나사렛 예수**를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아니면, 그것의 극히 작은 일 부분이라도--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해 질 것입니다.

(1) 먼저, 하나님은 세계의 전 남성 인구를 메시아의 육친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실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메시아가 천사가 아닌 인간으로 올 것임을 명백히 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아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15).

성경 안에 들어있는 단도직입적인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 가운데 첫 번째인 이 약속은 "모든 역사와 예언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리스

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메시아]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사탄과 그의 사악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15의 약속을 잘 이해하였다는 놀라운 증거를 창세기 4:1에 주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 하와는 기쁨에 넘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창세기 4:1)라고 소리쳤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하와는 약속된 구세주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때와 장소, 그리고 아직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지나야 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속량하시려고[구원하시려고]..."(갈라디아서 4:4-5).

(2) 다음으로, 노아의 아들 중, 함이나 야벳이 아닌 셈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 3분의 2를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민족들의 역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노아의 말을 통하여 자신과 셈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 주셨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창세기 9:26-27).

창세기 9:27의 예언의 마지막 실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영원의 말씀(요한복음 1:1)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요한복음 1:14).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셨습니다(창세기 11:10-27 참조 바람).

(3) 그 후,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민족--아브

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신이 시작한 새 민족--을 제외한 세상의 수백 개의 민족들 모두가 선택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하나님은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유대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 민족의 두 그룹으로 나누시고, 한 작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따로 분리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내가 이 땅을 네 자손[씨]에게 주리라"(창세기 12:1-3, 12:7. 창세기 17:1-8, 17:15-19도 참조 바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창세기 22:16-18).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글쓴이는 위함을 무릅쓰고 많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와 그의 "씨"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들에게 자신만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문헌상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창세기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 예언의 실현은 언제 보아도 놀라운 기적이며, 예언의 원형만큼이나 확실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하여 가나안을 유대 민족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아

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갈라디아서 3:8, 3:16 참조 바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라디아서 3:8, 3:16).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책]라"(마태복음 1:1).

이처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천천히 전개됩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씨)"이고, 썸의 계보를 통하여 오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메시아를 찾는 것에 그만큼 더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 인종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첫째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포함하여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현대 아랍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정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창세기 17:19, 21:12, 히브리서 11:18, 로마서 9:7,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로써 계보는 한층 더 좁혀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내가 이 모든 땅[약속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네 자손[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세기 26:2-4).

메시아와 약속된 축복이 아랍 민족이 아닌 이삭과 유대 인종을 통하여 와야 한다는 사실은 신명기 18:18에 더욱 강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형제 중에[즉, 이스라엘] 너와 같은 선지자 [이 땅에 임하실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가 일으켜지리라고 분명

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로마서 9:4-5).

(5)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므로, 메시아의 계보는 더 좁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오실 것임을 예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는 에돔인(에서의 후손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यो,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씨]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세기 28:13-14).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민수기 24:17, 19).

(6) 그러나 야곱에게는 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의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열 두 명 가운데의 하나인 **유다**가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 중 열 한 지파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유다를 통하여 오셔야 합니다(창세기 49:8-10 참조 바람).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시편 78:67-68).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역대상 5:2).

"홀[왕들]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세기 49:10).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로 좇아 나셨다**"

는 것을 잃게 됩니다(히브리서 7:14, 요한계시록 5:5 참조 바람).

(7) 다음으로, 유다 지파의 수천 개의 집안 중,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시아는 한 집안 계보,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안으로부터 오셔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순]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이 그[메시아] 위에 강림하시리니"(이사야 11:1-2).

헤브루어 성경 원본에서 "짝[순]"이라는 단어는 "잘린 나무 밑동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작은 가지나 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1-2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분이 높지 않은--잘린 나무의 "밑동"에 불과한--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접붙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다윗)의 아버지로 만들어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넣으시기 전까지, 이새는 왕족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8)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의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막내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사무엘하 7:12-13). (역대상 17:11-14, 시편 89:35-37, 예레미야 23:5-6도 참조 바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왕위]에 돌지라"(시편 132:11).

이 마지막 인용 구문(시편 132:11)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로써 그 약속을 확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히브리서 6:13-18 참조 바람).

한편, 신약 성경에는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책]라"(마태복음 1:1).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씨]에서 나셨고"(로마서 1:3. 디모데후서 2:7-8, 요한계시록

5:5, 22:16, 사도행전 2:30-32, 누가복음 1:30-33도 참조 바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때]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마태복음 9:27).

"가나안 여자 하나가...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태복음 15:22).

일반 대중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마태복음 9:27, 12:22-23, 15:22, 20:30-31, 21:9, 21:15, 마가복음 10:47-48, 누가복음 18:38-39 참조 바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함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였습니다(마태복음 22:41-46 참조 바람).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 계보(보계) 기록

성경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계보를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 인구수는 계보대로 계수(계산)되었습니다(역대상 9:1). 이 기록들은 성읍에 보관되었으며(느헤미야 7:5-6, 에스라 2:1), 공유 재산이었습니다. 각 이스라엘인들은 계보 기록을 갖고서 농장이나 집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였으므로, 자기 가족의 계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곧 금전상의 이익과 관련되었습니다. 이 국가 계보 기록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유대 나라가 붕괴될 때까지 잘 보관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그분이 다윗의 집안과 혈통에서 오셨다는 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반박한 사람은 감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유 기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 이래로, 성경 안의 것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 기록이 파손되거나 섞여져 버렸을 때, 어떤 거짓 메시아도 예

언이 요하는 바대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서기 70년 이전에 오셔야 했습니다.

(9) 또한, 다윗의 "여러 아들" 중, 메시아는 솔로몬의 왕계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와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역대상 28:5. 또한 역대상 29:24).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왕계 내에 있습니다(마태복음 1:6 참조 바람).

(10) 메시아에 관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몸의 소생(열매)이어야 하므로(시편 132:11), **이 동정녀는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성경에서의 '징조'는 '경이', '기적'을 의미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이사야 7:13-14).<sup>7</sup>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거론될 때마다 메시아의 어머니--혹은 태--에 관해서만 언급될 뿐, 인간 아버지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이사야 49:1 :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사야 49:5 :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31:22 :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시편 22:9 :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미가 5:3 :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7. 신개정 표준판 성경은 이사야 7:14에 나오는 헤브루어 단어 "알마"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알마"는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곳마다 어김없이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 한 예로, 출애굽기 2:8에서는 그 단어가 "소녀," "어린 여자," "아기 모세의 누이"로 쓰입니다.) 70인역(譯)에서, "알마"는 그리스어의 처녀에 해당하는 단어인 "파르테노스"로 번역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께서 다윗왕의 직계 후손 처녀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며 자연적 세대에 의한 혈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 기록을 나열해 보면, 결국 놀라운 말씀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했더니]...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18, 1:20-23).

예수의 탄생에 관한 정직하고 정확한 설명을 얻고자 하면, 착한 여자 마리아, 착한 남자 요셉, 착한 의사 누가, 믿을 수 있는 기록자 마태,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에 적힌 그대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 됩니다(마태복음 1:16-23, 누가복음 1:26-38, 누가복음 2:1-20 참조 바람).

여기에 진정 하나님만이 예언을 이루실 수 있다는 징조--**경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짓 메시아도 자신을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진실은 우주의 다른 모든 진실과 일치한다"는 진리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날 속임수를 쓰지 않고는, 자신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마리아, 요셉, 누가, 마태,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등과 같은 다섯 명의 훌륭한 증인을 모으기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섯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sup>8</sup>

8. 문필을 통한 기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모두 "다른 알려진 우주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언젠가는 거짓임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현대의 역사, 지리, 문헌학, 그리고 당시의 풍습과 관습을 알아봄으로써 문필을 통한 기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기만이 그 분야의 알려진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의 출생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 주셨던 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결코 위조될 수 없는 진정한 "징조"요, 천국에서 온 경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14에 세부 사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의 동정녀에게서의 출생에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예레미야 1:12).

메시아의 혈통을 보여주는 이 메시아의 연결 고리는 하와로부터 다윗, 이사야, 선지자 미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결 고리는 다양한 풍습과 때와 장소에 살았던 많은 인간 주체들에 의하여 더하여 졌습니다. 예언에 특정한 선택이 다른 경우에는 언제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를 잘못 선택할 새로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문자 그대로 자신의 혈통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함을 이루시고, 자신이 진정 "여자의 후손[씨]"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보이셨을 때(마태복음 1:1),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정확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부 사함을 모두, 아니면 그것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이를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나사렛 예수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봅시다. 세상에 동일인물은--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조지 바돈(George Bardon)"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거주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스미스 드라이브 113번지입니다. 키는 5피트 10인치이고, 체중은 165파운드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셋, 딸 둘, 모두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직업은 생명보험 판매인입니다. 은행에 \$5,124.76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세부 사항"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특징인에 관하여 자세한 특징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신

원 확인이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세부 사항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사실 확인은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이 틀림없이 가능하도록, 메시야에 관하여 아주 많은 세부 사항이 주어졌고, 그 세부 사항 하나 하나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11) 메시야가 오셨을 때 모두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분의 출생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예언은 태어날 마을로써 메시야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전부터]니라"(미가 5:2).

모든 대륙 중에서, 아시아가 선택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이외의 모든 지방이 배제되며, 유대에서는 당시 거주 인구가 천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외의 모든 도시가 제외됩니다. 선지자는 세계 지도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지만, 확신을 갖고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 뒤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뚜렷한 확신을 갖고서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유인즉, 헤롯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4-6, 요한복음 7:42).

### 극적으로 이루어진 예언

예수께서는 어떤 면으로 보나 놀라운 방식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마태복음 2:1) 탄생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 바로 전까지, 마리아는 정해진 곳--만일 그녀에게서 태어날 분이 메시아였다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미묘함을 살펴봅시다. 1923년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로마 신전의 한 비문--영국의 저명한 화학자이며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 경에 의해 알려졌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해독

해 본 결과,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 당시, 세 번에 걸쳐 방대한 호적(세금 징수)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호적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4년 전에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여러 해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호적입니다.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특별세를 걷는 것에 분개하여, 항의 대표단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는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통신이나 여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때였습니다. 대표단은 결국 목적달성에 실패하였고, 유대인들은 호적에 등록하여 세금을 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세 관리들이 마을과 마을, 도와 도를 거쳐 동쪽을 향하여 오는 도중, 유대인들의 항의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순조롭게 지연되어, 호적 등록이 유대지방에 실행에 옮겨졌을 때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시각이 정확히 맞물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나, 가이사나, 로마 징세 관리들 중 어느 누구도 시각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책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문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바로 그 날까지 모든 것의 시각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슬아슬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선택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정해진 곳--정확한 예언의 손가락으로 지정된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조물주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계획을 실행하신 전능자의 손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참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12)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기 위하여, 그 분이 오실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기나긴 역사가운데, 메시아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 시대 이전 사람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예수 시대 이후 사람 또한 전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그

당시 팔복할 만한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예언의 손가락은 정확히 **그분**을 지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시간과 관련하여, 세 개의 일반적 예언과 한 개의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가) 메시아는 **유다 지파가 지파의 정체성을 잃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홀[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세기 49:10).<sup>9</sup>

유다 **지파의 정체성**은--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개의 지파와는 달리--실로가 올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해설자들은 오랫동안 "실로"를 메시아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로는 "평화" 혹은 "보내어진 한 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칠십 년간 속박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유다 민족은 비록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지만, **결코 자기 나라의 정체성인 "지파의 지팡이"는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속박 기간 중에도 언제나 그들 자신만의 "치리자"(재판관)를 갖고 있었습니다(에스라 1:5, 8).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나,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임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당한 정도까지는 자신들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었고, 나라의 평의회 또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시던 해, 성전에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누가복음 2:41-52), **유대의 임금 아켈라오는 권좌에서 쫓겨나 추방당하였습니다.** 로마 행정관으로 고포노가 임명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옛 영광의 마지막 잔재인 유다 왕국은 공식적으로 수리아도의 일부분으로 격하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외형상으로 도의 통치조직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9. 흠정 영역 성서에서 "홀(sceptre)"로 번역된 단어 "세벳"은 막대나 지팡이, 특히 권력의 상징으로 각 지파에게 속한 막대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지파는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자신들만의 독특한 "막대"나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홀"은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서기 70년에 그들의 성읍과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의 군대에 의하여 붕괴되고, 유대인 나라의 통치권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9:10에 쓰여진 그대로, 유다가 지파의 정체성을 잃기 전에 메시아(실로)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메시아는 두 번째 성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오셔야 합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사모하는 것이 이르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전[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학개 2:7, 2:9).

말라기는 학개 2:7, 9의 예언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성전]에 임하리니"(말라기 3:1). 학개와 말라기의 예언은 서기 70년 성전의 붕괴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진정 오셨다면, 그분은 성전이 붕괴되기 전에 오셔야 했습니다. 스가랴 11:13 또한 메시아가 유대인 성전의 붕괴 이전에 오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은 삼십"을 "여호와와의 전[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도록"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스가랴 11:13).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시편 118:26은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시편 118:26). 이는 곧, 여호와가 오실 때,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집(성전)에서 메시아를 축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당당하게 입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태복음 21:9). 그 다음,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마태복음 21:14). 마태복음 21:15은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질러 말한

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기필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시편 8:2, 마태복음 21: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되어야 한다는 시편 118:26에 주어진 자신의 예언을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동안에 오셔야 함을 주장하는** 예언은 최소한 다섯 개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서기 70년에 붕괴된 이후, 재건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다섯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개 2:7-9, 말라기 3:1, 스가랴 11:13, 다니엘 9:26, 시편 118:26.

그러므로,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대중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은 모두 사전에 계획되고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관하여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시기와 그분이 하실 일들에 관하여 예언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예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사렛 예수의 활동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태복음 21:1-16, 마가복음 11:1-10, 누가복음 19:29-40 참조 바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마태복음 21:12-15).

이 점과 관련하여 지극히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5-32(필독 바람)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기 예수가 부모와 더불어 성전에 왔을 때, 그리고, 열두 살 소년 예수께서 "성전에서...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누가복음 2:46-47) 하였을 때입니다.

여러 해, 여러 세기 동안 기다린 끝에, 메시아는 홀연히 자신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말라기 3:1)!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셨듯이, 극적인 제스처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셨습니다**. 지금은 그 옛 성전 자리에 이교도들의 성소인 "바위의 돔"(Dome of the Rock)이

서 있습니다.<sup>10</sup> 이 중대한 사실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메시아는 벌써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2천년 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전에 오셔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참 메시아가 아니라면, 더 이상 메시아도, 예언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그리고 아무런 객관적 진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래와 역사는 침이나 줄줄 흘리는 얼간이의 중얼거림만큼이나, 그리고 격노한 소용돌이 가장자리에 떠도는 부목만큼이나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 선지자 다니엘은 성령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고 죽을 연도와 달, 날짜를 정확히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한 자들 가운데 다니엘에 의하여 예언된 날짜 이전 혹은 이후에 태어나거나 죽은 자들은 거짓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메시아는 다니엘이 말한 그 날짜에 정확히 태어나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임하실 때까지의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다니엘은 "한 왕의 백성[로마인들]이 와서 그 성읍[예루살렘]과 성소[성전]를 훼파하기"(다니엘 9:26) 전에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져 없어질[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시기에 관한 위의 예언을 뒷받침해 줍니다. 다음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라) 메시아는 다니엘 시대의 특정한 날로부터 483년 후에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정확한 시기에 관한 이 명쾌한 예언은 전 성경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예언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의 출현 날짜를 메시아가 오시기 거의 5백 년 전에 설정합니다. 다음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진하라는 영

10. 예수께서는 그들 예배의 중심, 그러니까 그들 나라의 존재 자체의 심장이며 영혼인 성전이 "둘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마태복음 24:2)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물론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일어났습니다.

[명령]이 날[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seven weeks)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성벽]가 이를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신 때문이 아니지만]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살해될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다니엘 9:25-26).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날짜는 기원전 444년으로, 이 때 아닥사스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느헤미야 2:1-8 참조 바람).

위에 인용된 성경 말씀(다니엘 9:25-26)에서 "이레(weeks)"로 번역된 헤브루어 단어는 "칠"을 의미하며, **칠년의 의미로 사용 됩니다.** 한 예로,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라반을 칠년(칠 일--이레)동안 봉사하였고, 다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칠년(칠 일--이레)을 봉사하였다고 창세기 29:20-28은 적고 있습니다. (레위기 25:8, 창세기 29:27-28 참조 바람.) 따라서, 명기된 사건들과 함께(다니엘 9:24)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읍에 예언적으로 정해진 "칠십 이레(seventy-sevens)"는 **490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일곱 "이레"(seven "weeks"), 즉, 칠 년이 일곱 번--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기타 그들과 관련된 자들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선지자가 할당한 49년(느헤미야와 에스라 참조 바람). 이 중건 작업에 49년이 걸렸음을 우리에게 역사는 말해 줍니다. (2) 육십 이 "이레"(62 "weeks"), 즉, **메시아의** 때에 이르기까지의 434년. (3) 일흔 번째 "이레"(70th "week")--메시아가 오신 얼마 후 칠 년의 기간.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기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 곧 왕"에 이르는 총 483년의 기간입니다. 로버트 앤더슨 경은 자신의 저서 "이 땅에 임하실 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여, 그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앤더슨 경은, 예루살렘을 증견하라는 영이 내린 날짜인 기원전 444년 3월 14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한 때로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저자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한 메시아가 왕으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보내어진 시기라고 믿습니다(마태복음 21:1-9; 스가랴 9:9). 철저한 조사와 저명한 천문학자들의 자문에 기초하여, 저자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444년부터 서기 32년까지는 476년입니다;  $476년 \times 365일 = 173,740일$ 입니다; 거기에, 3월 14일부터 4월 6일(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입성하신 날)까지의 24일과, 윤년으로 인한 116일을 더합니다(윤년에 해당되려면, 그 해의 연수가 4로 정확히 나눠져야 합니다. 단, 연수가 두 개의 0으로 끝날 경우, 400으로 정확히 나눠지는 해만 윤년입니다). 그러면, 총합계가 173,880일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1년은 언제나 360일이므로, 다니엘 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69 '이레'(69 'sevens')(69 X 7 X 360)는 173,880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제시한 '예루살렘을 증견하라는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 곧 왕'까지의 기간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로버트 앤더슨 경)

이것은 모호함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도로지도 만큼이나 정밀한, 그야말로 참된 예언입니다. 또한, 진실임이 증명될 수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 곧 왕"이셨고, 자신 때문이 아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끊어져 없어"지셨던 **나사렛 예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표시입니다. 예수께서 대중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마가복음 1:15). 메시아는 언젠가는 태어나셔야 합니다. 어느 세기여나, 어느 해에나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이 사건이 발생할 정확한 해와 정확한 달은 절대적인 확신 하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구나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놀라

운 예언들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언은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실현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두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신의 계보, 출생장소, 출생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모두를 나사렛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 성전은 붕괴되었고, 유대인 목사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사도 더 이상 드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계보 기록 또한 소실되었으며, 자신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노예로 팔리고, 지구상의 네 구석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내려진 이후에,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제시하신 것과 같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메시아"가 갖고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II. 메시아의 삶 및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예언들

(1) 예언가들은 메시아의 신성과 온전함을 수백 개의 예언들 속에 분명히 묘사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일 것입니다.<sup>11</sup> 사실 그분은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큼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가지[이시며]...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예레미야 23:5-6). 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2:1). 마태복음 3:17에서, 아버지가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

11.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이해에 관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40:6-10, 45:1-8, 이사야 11:2-5, 42:1-7, 63:1-3, 이사야 53:7-9.

셨습니다. 메시아 자신은 늘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일 것입니다(시편 40:8). 주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증언하셨습니다(요한복음 4:34. 요한복음 6:38도 참조 바람).

메시아는 방식에 있어서나 등급에 있어서나 어떤 한 사람보다도 혹은 한 무리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훌륭하게(그분의 동료보다 "승하게," 시편 45:7, 히브리서 1:9)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오순절 이후로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11:2-5의 놀라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와 신[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성령]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성령]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성령]이 그 위에 [성경 원본: "그의 안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성경 원본: "안에"] 빛을 비추셨습니다(마태복음 3:16). 예수께서는 자신 위에[성경 원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누가복음 4:18). 그것은 이사야 61:1-3에 나오는 메시아의 확실성과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예수]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겼습니다(누가복음 4:22).

메시아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하에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이사야 42:2). 메시아가 한 말은 곧 그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 들린 그분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자신의 목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한복음 14:10).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4:31-32, 34). 그러므로 반복컨대, 거리에 들린 목소리는 메시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인도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목소리--분노에 찬 목소리였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인간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단 한번의 죄 지음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었던 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8, 로마서 8:1-10, 37, 갈라디아서 5:16, 빌립보서 4:13, 요한1서 4:4).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가 언제나 엄격하고 한결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결과와 운명을 선택하도록, 그분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이나 악을 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도, 꺼져 가는 등불(연기 나는 삼대)을 끄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이사야 42:3). 그분은 참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영혼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분은 강제로 잡아끌려고도 하지 않으실 것이며, 비기독교적으로 사고하지 않도록 그들을 억지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바꾸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오늘날의 사악한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천국을 얻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여 무시무시하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버지의 뜻인 옳은 일을 행하심에 있어 끈기와 인내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 확고한 목표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으시며, 목적하신 바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이사야 42:4).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술하면서 마태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이사야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메시아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 가는 심지[연기 나는 삼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태복음 12:17-21, 이사야 42:1-4).

메시아의 인자하심과 다정하심은 감동적인 애정이 절묘하게 나타난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이사야 40:11).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관하여 마태복음 9:36, 14:14, 15:32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보여집니다(요한복음 10:1-18).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마,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는 "공평"하고 "검손"하시며(스가랴 9:9),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하나님에게 영영히 복을 받으셨으니 "인생보다 아름다우

십니다[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가장 멋진 분입니다]"(시편 45:2). 또한 강포(폭력)가 없으시고(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폭력을 쓰미 없이, 단지 악에 대항하여만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고), 외적 생활은--궤사(속임)도 없으시고--비난할 점도 없으시며, 내적 생활은 순수하셨습니다(이사야 53:9, 베드로전서 2:22). 메시아는 자기에게 행하여진 인간들의 학대로 인하여 크게 괴로움을 겪으실 것입니다(이사야 53:7, 이사야 50:6, 마태복음 26:67-68, 27:28-44, 누가복음 23:11, 23:35-37, 요한복음 19:1-3, 19:16-18).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행하실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마태복음 11:29), 그리고, 아버지가 그분에 관하여 "네가 의를 사랑하고[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히브리서 1:9)라고 증거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덮친 모든 경멸과 모욕과 훼방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폭력을 온유하게(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견디셨습니다. 또한 도망간 무리(제자들)들이 아직 가르침의 성령으로 세례--그들이 오순절에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1-4은 적고 있습니다--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34, 마태복음 27:12-14).

스승으로서 메시아는 "쇠하지 아니하며...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고," 열방들은 "그 교훈을 앙망할" 것입니다(이사야 42:4). 구세주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실패함이 없이 이루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며 모든 일의 심판자임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죽음, 지옥과 묘소를 승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어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심으로써, 또한 메시아가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게 하심으로써 메시아는 자신의 말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과업, 즉 "말씀의 육신됨"은 이 땅 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심판은 공정한 바, 열방은

그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그분의 심판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참되고 공정하고 공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비유"를 가지고서 입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은 미리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옛 비밀한 말을 발표"(시편 78:2)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마태복음 7:29).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에, 랍비가 말한 것들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요한복음 5:24, 6:47 참조 바람). 더욱이,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루려 하심이니라**"(마태복음 13:34-35).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인간들보다 더 거룩하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만큼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심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히브리서 7:26)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누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 모든 문헌의 기적: 온전한 하나님-인간의 묘사

이제 모든 문헌의 기적, 즉, 온전한 하나님-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온전한 메시아의 묘사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추상적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에게서, 그리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주 예수에게서, 우리는 전적으로 사랑스럽고 만 사람에 뛰어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쁨이신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sup>12</sup>

12.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합리화하고 미래에 죄악을 자유로이 범할 수 있도록, 신의 위임을 받은 척 행동한 교활한 마호메트를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보십시오. 주 예수님은 정말 다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요한복음 10: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처럼 완벽하셨던 그리스도의 몸가짐이 기행과 인간다운 결점으로 절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온전함은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그분의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평은 편견으로 뒤틀리지 않았고, 그분의 공의는 개인적 변덕으로 때문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겸손과 잘 조화되어 어울리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셨고, 열성과 인내심을 가지셨으며, 거짓 없이 재치가 있으셨고, 죄지음 없이 정직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사탄에 대한 미움과 철저한 강경 자세뿐만 아니라 온순함, 인내심, 질책, 책망, 그리고 위대한 권능이 함께 조화되어 늘 한결같았습니다.

메시아는 결코 패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철회할 필요도 없으셨으며, 사과를 하거나 가르침을 변경할 필요도, 죄나 잘못을 고해야 한다거나 인간들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은 답--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으며,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셨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들의 축적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가난 속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결코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메시아는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르치심대로 사셨던 완벽한 스승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아들"이셨지만,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요한복음 7:46). 그는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구속받은 자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함으로써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가...세상의 빛이로다"(요한복음 9:5)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소경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써(요한복음 11:43-44) 자신의 말씀이 참되고 과장이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요한복음 6:35)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상징적인 기적을 행하시어(요한복음 6:5-14), 자신이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 참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분이 약속을 하고서 것처럼 인간들을 영원히 속였다면 인간에게 범해진 지독한 죄악이고, 무모한 어리석음이며, 용서될 수 없는 자만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악이 예수처럼 선하고 자애로우신 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그 동안 많은 글들이 쓰여져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글들이 또 쓰여질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히브리서 1:3), 모든 선의 요약이요 실상이시며, 실제 인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자(골로새서 2:9)라고 함이 충분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밝은 광채로 빛났고, 그분의 자애로우심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순수하고 참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사욕이 없고 온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비할 바 없는 부당한 고통의 무게 아래 돌아가신 완전한 하나님--인간을 인류가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만 겸손하신 "고난을 당하신 왕"은 아무런 불평 없이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2) 메시아가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과업으로서,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리 희생물로 자신을 바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은 인간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와 신[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겸비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때]와...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이사야 61:1-3).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는 진정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자여야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이사야 35:4-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영적인 소경 상태를 없애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어둠]에 처한 자를 간[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이사야 42:6-7). 사탄의 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의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부서집니다.

"이방의 빛"(이사야 11:10, 이사야 42:6)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사야 49:7. 또한 이사야 42:6)로서,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이사야 49:6) 하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선지자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주재여...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누가복음 2:29-32)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8-79, 로마서 3:29도 참조 바람.)

메시야가 행하신 특별한 과업은 자신을 오직 한번,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속전으로, 제물로, 희생물로 바치시는 일이며, 이는 죄인이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무지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4-6, 53:10, 53:12 참조 바람). 이것은 만약 당신이 무지하여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지의 죄가 아닌 고의적인 죄로 여겨지기때문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에 죽음에 이를때까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용서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16-17). 이처럼 죽음으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메시야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창세기 3:15; 히브리서 2:14, 요한1서 3:8), 그 위대한 구원으로 영원히 존속할 왕국을 이룩하실 것입니다(다니엘 7:14, 이사야 9:7, 누가복음 1:32-33).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거룩하고 온전하심,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특별한 "과업"의 측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야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그분의 일들--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야라는 증거로서 기적을 동반한 가르침과 행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22, 2:36, 2:24).

예수께서는 자기를 접한 모든 구도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하고 도와 주셨다고 복음서에 쓰여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등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sup>13</sup>

세례 요한은, 헤롯왕에 의해 투옥을 당한 후, 제자 두 명을 예수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태복음 11:2-3)라고 묻게 함으로써, 예수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라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으로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기적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아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다시]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앞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태복음 11:4-5)--이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메시아의 징표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복을 주시는 자비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내어진 목적이시며 창세 전부터 미리 운명지어진 위대한 과업--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대리 제물로 바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완수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1:18-20 참조 바람).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13. 마가복음 1:32, 1:34, 1:40-42, 요한복음 9:6-7, 11:43-44, 요한복음 6:11-13, 6:19-21 참조 바람.

주셨으니"(디모데전서 2:5-6).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9).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히브리서 9:26).

예수 자신도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10-11).

단지 거짓 메시아에 불과한 자는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이 일곱 가지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 (1)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
- (2) 자신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만큼 온전할 것.
- (3) "기적"을 행할 것.
- (4)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
- (5)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 (6)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를 것.
- (7) 하나님의 우편에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취할 것.

**이 일곱 가지 필요 조건은, "거짓 메시아"를 모두 가려낼 수 있게 해 줄뿐만 아니라, 일곱 가지 모두를 실현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참 메시아이심을 명백히 해 줍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백만의 이방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어 왔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 만인의 구세주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을 감쌌고(요한복음 3:16), 그분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며(마가복음 16:15), 그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어떤 다른 이름도 우

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사도행전 4:12).

### 더해진 징표의 압도적인 누적 효과

우리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유다, 이새, 다윗, 그리고 "여자의 후손[씨]"으로 동정녀에게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생하심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추적을 통하여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온전하게 실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보 기록이 서기 70년에 모두 파손되어 버린 관계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을, 그 메시아는 고침의 기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비의 가르침을 행하신 온전한 하나님-인간(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일 것임을,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일은 (자신을 믿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보여 드렸습니다. 네 복음서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 모두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실현의 누적 효과는 실로 경이적입니다.

비교적 적은 숫자의 독특한 "징표"만으로도 수십 억 명 가운데서 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있어 충분함을 하나의 예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 데이비드 그린그라스의 신분 확인

제 2차 세계 대전 후 핵무기에 관한 비밀을 소련인들에게 제공했던 반역자 데이비드 그린그라스를 미국 관계 당국이 추적하고 있을 당시, 그는 멕시코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공모자들은 그가 멕시코 시티에서 소련 대사의 비서관을 만나서, 미리 정해진 징표들로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린그라스와 비서관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지시 사항이 주어졌습니다.) (1) 그가 비서관에게 쪽지를 적어 주고 거기에 "아이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한다. (2) 3일 후, 그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플라사데콜론으로 가서, (3) 가운데 손가락을 여행 안내서에 낀 채로 (4) 콜럼버스 동상 앞에서 있다. (5) 비서관이 다가오면, 그린그라스는 그 동상이 훌륭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는 오클라호마에서 왔다고 말한다. (6) 그러면, 비서관이 그에게 여권을 건네준다. 물론, 그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sup>14</sup>

그들은--그리고 모든 사람들은--단 여섯 가지의 징표만으로도 사기꾼이, 사전에 그 징표들을 알아내지 않은 한, 비서관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섯 가지가 아닌 수백 가지의 징표를 주시기로 하셨고, 또한 어떠한 거짓 메시아도 결코 위조해 낼 수 없는 (메시아가 처녀로부터 탄생하시는 것이나 부활하시는 것과 같은) 성질의 징표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사실들을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모두 메시아는 예언되었고 또한 그 메시아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초림과 관련된 수백 가지의 예언을 모두 이루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견줄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이 사실들은 "새 지도자(The New Leader)" 1951년 4월 2일자에서 발췌되었습니다.

### III.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의 예언상의 역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 특이한 배합을 보여주는 불가사의한 예언상의 수수께끼를 제시하는데, 이는 이따금 너무 모순되어 보여 실현이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이며 외관상 서로 상충하는 이 예언들을 편의상 "예언상의 역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언상의 역설"은 실제로는 모순이 없지만 외관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여 "단서"나 실현이 없이는 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예언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예언상의 역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하여 풀린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에 담겨있는 이 역설은 난해한 요소를 갖고 있어, 소위 자물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열쇠<sup>15</sup>는 신약 성경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에 들어 있는 이 놀라운 특징은 사악한 인간들이나 지나치게 열광적인 사도들이--할 수만 있다면--의도적으로 그 예언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적어도 몇몇 경우에 있어서, 실현을 통하여 설

15. 어쩌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마술사일 수도 있는 해리 후디니(Harry Houdini)가 파리에서 한번은 자물쇠를 풀고 나오는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그 지역의 마술사 한 명이 자신도 후디니가 보여 준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공개적으로 후디니의 특별 자물쇠로 잠긴 우리에서 빠져 나오는 시범을 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교활한 프랑스 마술사는 후디니 몰래 공모자를 한 명 두고 있었고, 그 공모자는 미국 마술사에게서 교묘히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후디니는 그 계락을 눈치채고서, 그날 밤 비밀번호를 바꿔 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 건방진 프랑스 마술사는 자신을 우리 안에 가두고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물쇠를 열지 못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새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노력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후디니에게 자신을 꺼내 달라고 요청해야 했고, 후디니는 약간의 쇼맨십을 보인 후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후디니는 그 프랑스 마술사와 관중들에게 다섯 글자로 된 새 비밀번호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F-R-A-U-D(기만)였습니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비밀번호를 만든 사람 자신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자물쇠로 주신 분 바로 그분만이 그 비밀들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과 행적 안에 그 비밀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가짜 메시아들은 모두 기만입니다!

명되고 알기 쉽게 풀이될 때까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10-11 참조 바람.) 그러한 독특한 예언들은 그것들을 만드신 예언의 하나님과 그것들을 이루신 선견의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절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 예언상의 역설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예언들이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이고 꾸밈 없는 방법으로 신의 섭리에 의하여 실로 기적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들이나 예언들을 짜 맞추려고 애써 노력하거나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대조를 이루는 구절들 중 몇 가지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그 때에 아이로 태어나 오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만--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는 "아들"로 오시지만--"영존하시는 아버지"(이사야 9:6)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여진 선택받고 고귀한 분이지만--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시는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시나 그들 온 유대나라에게 배척받으시고--열방(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져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고--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며, 전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을 펴십니다. "멸시" 당하시나--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고, "끊어져 없어"지시나(살해당하시나)--그분의 날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비통과 영광, 고통과 승리, 굴욕과 높임, 십자가와 면류관은 너무나 강하게 섞여 있어, 옛 유대교 해설자들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실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는 너무나 진기하고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너무나 꾸밈이 없으면서도 지극히 난해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영원히 모든 문헌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사실로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예언상의 역설들 중, 몇 가지만 골라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메시아의 출생에 관하여.** 다음 예언들의 현저하게 상충되는 부분들에 주목하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인간의 경험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아기는 하나님--"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으나, 그 스스로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기적적인 존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이 놀라운 예언들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기적"을 이루신 결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누가복음 1:35). 그리고 마태복음 1:16-25에 기록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실현되기 700년 전에 주어진 위에 인용한 두 가지 예언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나타나심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디모데전서 3:16, 요한복음 1:1-3, 1:14, 누가복음 1:31-33 참조 바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일어났습니다(누가복음 1:34).

하나님-인간이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도(이사야 7:14, 9:6), 메시아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시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씨]"(창세기 3:15), "인자[사람의 아들]"(다니엘 7:13), 하나님의 아들(시편 2:7), 아브라함의 씨(창세기 22:18), 그리고 다윗의 몸의 "소생[열매]"(시편 132:11)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으

며, 동시에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사람의 아들" 이면서 육친의 아버지를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사 내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여자의 후손"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가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요한복음 1:1);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요한복음 1:14);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갈라디아서 4:4); 그분은 "사람의 아들"--사람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누가복음 19:10);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요한복음 3:16);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이셨습니다(마태복음 1:1). 보십시오,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이 기적들: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인간, 그러면서도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으나, 또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육신의 연합된 존재이시며, 자애롭고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복음 전도자 요한은 "하나님의[...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골로새서 2:2, 4:3)이라고 불리는 최대의 수수께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품안에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2, 1:18, 1:14 참조 바람).

(2) **메시아의 근원지.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베들레헬? 애굽? 아니면, 나사렛?**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일련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베들레헬]... 나올 것이라"(미가 5:2)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구절은 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호세아 11:1; 마태복음 2:15)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의 예언으로 널리 알려진 또 하나의 구두로 전해진 예언이 있는

데, 이는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마태복음 2:2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1에 의거해 볼 때, 메시아는 가지(헤브루어, 나-사)이며, 이는 "분리된 사람," 또는 "나사렛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순되는 사실들일까요? 신성으로 정해진 삶 속에서 사건 하나 하나로 수수께끼를 푸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말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을 애굽으로 데려 갔는데, 사악한 헤롯왕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그분을 "불러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3-21).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주님이 성장하신 마을인 나사렛입니다.<sup>16</sup> 그런 연유로, 그분의 행적에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었습니다(누가복음 18:37, 사도행전 2:22).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시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유다에서 유대 형제들과 살지 않으시고 대신 갈릴리에서 사셨기에 실로 진정한 "나사렛 사람," 즉 "분리된 사람"이셨습니다! 옛날 요셉 또한 애굽에서 여러 해 동안 피해 살 때에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이라는 단어가 헤브루어 어원 **나사로부**

16. 예언과 그 예언의 실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한 자극을 더해 주는 몹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분명히 유대 지방 베들레헴 근처에 정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태복음 2:22-23). 죽기 직전 헛길에, 헤롯왕은 자신의 유언을 바꿔 안디바를 제치고 자신의 아들 중 가장 못된 아켈라오를 왕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바로 아켈라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거주지를 찾도록 하였는데, 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노(怒)를 자신을 찬송하게 하는 데에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미 급한 왕의 노를 자신의 말씀의 실현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76:10 참조 바람.)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의 진전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됨은 수백 년 전에 벌써 하나님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의 종말을 시작 전부터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이사야 46:10).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생각과 의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악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로마서 2:16, 마태복음 12:36-37, 히브리서 4:12-13).

터 나온 사실은 창세기 49:26 참조 바람.)

겉으로 보기에 상충되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예수의 삶에 대한 역사 기록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줍니다.

**(3)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리하게 질문하신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마태복음 22:41-45. 그리스도는 시편 110:1에서 인용하셨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여진 사실들에 들어있는 문제에 대한 열쇠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자손이셨으며(누가복음 1:32, 로마서 1:3),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한계시록 19:16)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다윗의 주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3:6에서 메시아는 "여호와[주] 우리의 의"라고 일컬어지며, 말라기 3:1과 시편 110:1에서는 "주" "우리 주"라고 각각 일컬어집니다. 이사야 9:6, 마태복음 1:23, 요한복음 14:8-10을 포함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성을 일컫는 이 모든 이름들과 명칭들을 보십시오. 메시아는 다윗의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주이심이 명백합니다.

**(4) 다윗의 위(왕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리.**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복잡하여, 문제와 해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집중력이 약간 요구됩니다. 하지만,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후손 중의 하나가 여고냐(고니야)라는 이름을 가진 악한 자여서, 그의 후손들 중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 기록으로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예레미야 22: 28-30 참조 바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남성 계보를 통해서만 왕위에 대한 권리가 전해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위"를 계승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이사야 9:7, 예레미야 33:15-17, 시편 132:11, 역대상 17:11, 17:14). 그러나,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그 분이 다윗의 위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고냐의 죄로 세워진 장애물은 어떻게 비켜갈 수 있을까요? 외관상으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예언들을 누가 과연 풀 수 있을까요? 미지의 예언을 고안해 내시고 그들의 실현을 이루신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맡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이사야 9:7)라고 말하셨습니다.

외관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풀리고 해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계보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문제를 푸셨는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의 계보에는,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이로써, 그분에게 다윗의 위(왕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보여줍니다--이로써, 그분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씨)에게 주어진 영토 소유권인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sup>17</sup>

마태의 계보에서 요셉은 다윗왕 가계의 **왕통**에 속하며 **솔로몬**을 통하여 내려온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여

17. 누가복음 3:38에서 헬리(마리아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지고(창세기 1:27-30, 히브리서 2:6-9, 요한계시록 5:1-10 참조 바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만유"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짐(히브리서 1:2 참조 바람)--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고냐(고니야라고도 함)를 통하여 내려온 다윗왕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직접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의 계보 기록은 예수가 요셉을 통한 "다윗의 몸의 소생[열매]," 즉 요셉을 통한 다윗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음**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23-38에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리아**를 통하여 제시됩니다. (헬리는 명백히 마리아의 아버지이자 요셉의 장인이었습니다,<sup>18</sup> 누가복음 3:23). 기록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다윗의 몸의 소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왕족**에는 속하였으나, **왕통**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나단을 통한 다윗왕의 자손이었음에 반하여, 왕위에 대한 권리는 **솔로몬의 계보를 통하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역대상 28:5-6 참조 바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그 일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태복음 1:18-20).<sup>19</sup>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밀히 말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다윗왕의 자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역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을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다윗의 위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탄생 전에, 마리아가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되어, 요셉을 예수의 법률상의 아버지, 양육의 아버지로

**18.**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 기록에서 "야곱은...요셉을 낳았으니"(마태복음 1:16)라고 쓰인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이는 곧, 야곱이 요셉의 실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누가복음 3:23)라고 쓰여 있는데, 이 때, "아들"은 요셉이 헬리의 사위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사무엘상 24:16 참조 바람).

**19.** 성경에 들어있는 계보 기록의 중요성을 축소시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계보 기록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또한 다윗의 왕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계보 기록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심을 보여주는 이 증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며, 또한 이루어진 예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실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동시에 여고냐에 관한 예언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고냐의 "씨"--직계 후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한, 그러면서도 그토록 정확히 해결된 것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친(길러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그 당시 예수의 양친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가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위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여고냐의 자손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했지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서 "알지" 못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실현은 모든 점에서 완벽했습니다!

**(5) 메시아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면서 동시에 "거치는 돌"이시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가...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이사야 8:14).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편 118:22, 이사야 28:16).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메시아는 "걸리는 반석"이며 동시에 "거치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개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믿음이나 불신이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수수께끼를 설명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

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베드로전서 2:6-8). (로마서 9:32-33도 참조 바람.)

자주 그러하셨듯이, 주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주의를 요하시면서, 자신을 신약 성경 안에서 그 예언의 실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바리새인들]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마태복음 21:42). 주님은 이 중요한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깨어지겠고." "이 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날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완전히 영원토록 파멸시켜]"(누가복음 20:18 참조 바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며,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십니다. 전자에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며, 후자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불신 속에서 그리스도에 걸리어 넘어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영원한 파멸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6)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으시고 나서(이사야 53:3),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하실 것입니다(이사야 49:5-6).**

인종적으로 메시아는 유대인이셔야 하고 또 유대인이실 것입니다(이새의 줄기에서 한 "순"이 나며. 이사야 11:1, 11: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분에게로 오게 됩니다(이사야 11:10).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자연적인 적대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있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에베소서 2:13-15).

이방인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영적 눈멀의 휘장은 하나님의 말

씀을 믿음으로써 만민으로부터 없어질 것이며(이사야 25:7 참조 바람), 불신의 휘장은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 위에 생겨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 천벌에 의한 눈땀에 관하여 예언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멸시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배척한 이유로, 같은 일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이사야 6:10).

"내가 나의 종이 되어...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야 49:6).

2000년에 걸친 역사는 이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메시아를 로마가 처형하고 이스라엘이 배척하였을 때, 불신의 휘장이 이스라엘 위에 걸쳐졌고, 몇몇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지만, 눈땀은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남습니다(고린도후서 3:14-15). 그리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사도행전 28:28 참조 바람), 요한복음 3:16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한 유대인(예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 나라가 그분을 외면하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요한복음 1:11-12).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일들이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7) 메시아는 두 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구원자로서 자비의 임무,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실 왕으로서 심판의 임무.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초림 시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기에,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심판자와 왕으로서의 그분의 역할이 재림 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다운 능변으로 메시아께서 임하실 왕국의 영광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이사야는, 굴욕과 재판, 고통의 성격 또한 역사가답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굴욕과 재판, 고통은 구세주의 승리에 앞서 오도록 예정되어, 메시아를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왕, 신적 존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굴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망가지시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셨으며, 갈증으로 죽어 가시는 분(시편 22편)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분이 솔로몬 가문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다윗 왕가의 군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 둘 다가 동시에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운명들은 분명히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의 의도 하에 중대한 구원의 계획은 두 다른 시기(초림과 재림)에 행하여짐이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자비의 임무)는 흔히 심판자와 왕으로서의 과업을 나타내는 부분과 같은 구절에 제시됩니다. 아래의 인용 구절에, 재림 때에 그분의 심판자로서의 과업을 묘사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초림과 관련됩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겸비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별을 내림]의 날을 전파하여"(이사야 61:1-2).

이처럼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메시아의 과업--구원과 심판; 초림 때의 굴욕과 구세주로서의 과업, 그리고 재림 때의 의로운 왕

국 건설 과업--이 섞이어 기술된 예언은 스가랴 9:9-10, 미가 5:1-4, 다니엘 9:24을 비롯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어떤 입장--초림, 혹은 재림, 아니면,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쓰여졌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61:1-2)의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을 때(누가복음 4:17-21 참조 바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읽으시고는 글읽기를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재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일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대의 랍비들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들과 다른 비슷한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는 두 분이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한 분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듯이,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분께서 수행하실 별개의 두 가지 과업을 갖고 계신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죄악을 씻어주기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초림 때의 과업이며, 다른 하나는 힘센 왕으로 "영원한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과업입니다(다니엘 9:24).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은 초림에 관계되느냐 재림에 관계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초림과 재림은 이사야 53장과 11장, 시편 22편과 72편, 시편 69편과 89편의 구절들에서 대조를 보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베드로전서 1:11과 같은 신약 성경 구절에도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초림 때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재림 때의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17과 요한계시록 19:11-21, 누가복음 9:56과 유

다서 1:14-15, 그리고 누가복음 19:10과 데살로니가후서 1:7-10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메시아는 "자기 위(왕위)에 있는 제사장"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가지]이라 이름하는 사람[메시아]이... 여호와와 전[성전]을 건축하리라... 또 제사장 [메시아]이 자기 위[왕위]에 있으리니"(스가랴 6:12-13).

시편 110:4에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명령]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리십니다. 예레미야 23:5에서는 "의로운 가지...왕"으로 불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택된 왕들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지파를 가진 유다와 열 개의 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나뉘어, 이스라엘이 자체의 왕을 열 개의 지파 가운데서 가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히브리서 7:14), 어떻게 제사장 또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유다와 레위) 두 지파로부터 나오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렸을까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이 땅에서 자기의 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본뜬 의미에서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직 한 번 자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26.) 그러나, 그분은 왕이기도 하였고 제사장이기도 하였던(히브리서 7:1-2) 멜기세덱의 반차[명령]를 좇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히브리서 5:6, 시편 110:4). 흥미를 자아내는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주제는 히브리서 7-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수수께끼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립니다!

(9) **여호와와 선택된 종 메시아는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신 강한 하나님-인간--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이사야 42:1). 동시에, 이 "거룩하신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미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이사야 49:7).

이사야 40:5은 이 땅에 임하실 분인 메시아 안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조 가운데, 메시아가 "멀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고 백성들의 보기에 "외모상 출중함이 없는" 분으로 이야기하여 집니다(이사야 53:1-3).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역설은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마태복음 17:5).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분의 배척 당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예언들보다 더 슬픈 실현을 얻은 예언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배척 당할 때, 그들에 대해 느끼는 비애감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37).

이유없이 그분을 미워한 자들이 그분의 머리털보다 많았습니다(시편 69:4, 요한복음 15:25). 신약 성경의 기록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한복음 1:11)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0) "은 삼십은 그리스도의 값일까요, 아니면 토기장이의 발 값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값]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값]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스가랴 11:12-13).

신약 성경에 실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기도 어려운 정말 생소한 말

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분을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마태복음 26:15).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고 뉘우친 유다는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정가한 자의 가격[메시아의 몸값] 곧 은 삼십을 가지고...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마태복음 27:3-10).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분을 비참할 정도로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노예 값에 지나지 않은 은 삼십에 팔아 넘김으로써(출애굽기 21:32) 거룩한 분에 대한 미움과 경멸을 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언들에 포함된 어느 정도의 불분명함이 실현 안에서 명명백백해지는 경우의 완벽한 예입니다.

정확한 액수의 돈(은 삼십)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실현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액수의 돈(은 삼십)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에 쓴 것이 하나님의 사전 계획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실현 안에서, 모든 모호성이 제거되고 예언과 실현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히 이루어져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똑같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전능하신 권능을 비밀히 행사하시어 일을 것처럼 꾸며 놓으셨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던지고 그들이 토기장이의 땅을 샀을 때, 그들은 예언을 실현하기도 하였거니와, 또한 자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불러들임으로써 메시아에게 저지른 자신들의 죄를 영속적으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11) 무시무시한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자[메시아]에게 올 것입니다.

"제 구시(九時)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는 예비되었나이다"(마태복음 27:46)--이것이 저의 운명이었습니다--이를 위하여 저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21).

**(12) "상처를 입고" "찢리지만"--"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심"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예언적 기록입니다.**

메시아는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고(스가랴 13:6) 수족이 모두 찢리지만(시편 22:16), 기적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 메시아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편 34:20, 출애굽기 12:46).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이 너무 늦게까지 죽지 않아 안식일 이전에 십자가로부터 시체를 제거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게" 해 달라고--십자가에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수단--하였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요한복음 19:32-37).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기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둘은 다리가 꺾이었으나, 셋째 사람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시편 34:20). 그분의 양손과 발과 옆구리가 찢렸지만, 매번 무기는 뼈를 비껴나가, 뼈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13) "끓어져 없어질"(다니엘 9:26, 이사야 53:8), 그리고 "자**

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이사야 53:12)하신 메시아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이사야 52:13)되실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은 길 것이요[메시아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이고], 또 그[메시아]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이사야 53:10)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메시아]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그의 몫]을 얻게"(이사야 53:12)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사실들은 실현되었을 때에는 명백하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불분명한 말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스텔을 느끼게 하는 예언상의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립보서 2:8-11)라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이사야 53:3). 그러나 그분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시편 89:27)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독자들은 모두 이 수수께끼(베드로전서 1:10-11 참조 바람)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모든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 IV. 메시아(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예언

### (가) 시편 22편과 (나) 이사야 53장의 고찰

#### (가) 시편 22편

시편 22편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빌론에 의해 감금될 때까지(기원전 600년)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로마와 그리스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돌로 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방법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에 의하여 예수의 시대로부터 천년 전에 쓰여진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세주적 성격은 믿음이 깊은 학생들에게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누군가--메시아--가 아주 특별한 상황하에서 무시무시하게 죽게 될 것임을 계시하여 줍니다. 옛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시편 22:16-17). 다윗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부분적으로 벗긴 것--"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것"--과 손과 발을 찢렸다는 것은 명백히 십자가에 못 박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손과 발만이 찢리고, 옷이 모두 벗겨집니다. **거짓 메시아가 실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절을 택하였겠습니까?** 이 시편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의 탄생에서도 그랬고 가르침과 행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옛 기록은 세부 사항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마치 사진처럼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람어 전문 번역가들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결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sup>20</sup>**

네 권의 복음서는 맨 처음 그리스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와 헤브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는 예비되었나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마태복음 27:45-47, 원본).

복음서의 모든 역본들은 이 단어들을 원어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방 역본에 따르면, 마태는 이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보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훗날의 글쓴이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람어는 매우 난해한 언어이므로, 그 사람들이 번역본을 성경으로 옮겨 적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현재에도, 아시리아에 있는 아람어 사용자들에 의해서만 쓰이는데, 이들은 예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는 예비되었나이다[이것이 저의 운명이었습니다--이를 위하여 저는 태어났습니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2:1을 주 예수의 예언으로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인용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편의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것이

20. "고대 동방 원서 번역본 홀리 바이블," 조지 M. 램사(George M. Lamsa) 번역, 하퍼 콜린스 출판사(Harper Collins Publishers).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것이라면, 아람어 대신 헤브루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헤브루어로부터 번역을 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 "나를 예비하셨나이다"를 의미하는 표현인 "사박다니" 대신,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 "나사다니"를 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있던 군병들조차도 예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사실상 아람어로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이며,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sup>21</sup>

고난 속에서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예수께서는 로마 군병들, 자신이 고난 당하고 죽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올라온 바리새인들, 유대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남녀들로 구성된 군중들을 지켜보셨습니다.<sup>22</sup>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sup>23</sup> 실제로는 그분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셨으며,<sup>24</sup> 우리의 주, 구세주,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생의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인간"의 모든 창조물 중 첫 번째이셨음에도 불구하고,<sup>25</sup>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죄인, 사교 집단의 지도자, 혹은 악인<sup>26</sup>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는 예비되었나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람어로 꾸밈없이 하신 것입니다. 아람어를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증거가 되었습니다.<sup>27</sup>

21. 마 27:46-49 22. 마 27:27, 27:35-36, 27:39-43, 27:54-56, 눅 23:27, 35-36 23. 마 26:67, 27:27-31, 27:34-44, 27:48-49, 막14:65, 15:19 24. 마 27:20-44, 26:59-68, 막 15:16-20, 15:29-32, 눅 23:1-5, 23:35-39, 요 5:16-18, 7:1, 7:7, 7:20, 9:24 25. 신 4:35, 4:39, 사 9:6, 44:6, 45:22, 느 9:6, 마 1:23, 요 1:1-3, 1:10-14, 10:30, 12:44-45, 14:6-11, 14:13, 14:20, 14:23, 17:21, 고후 4:4, 엡 3:9, 골 1:12-17, 딤후 3:16, 히 1:2-3, 1:8-10, 계 4:11 26. 사 9:6, 43:3, 43:11, 49:26, 율 2:1-11, 마 27:50-54, 막 15:39, 요 1:12-13, 1:17-18, 3:16-17, 행 1:8, 2:1-4, 2:16-18, 2:38-39, 롬 8:1-4, 8:16-23, 8:29-30, 교전 15:20-23, 고후 5:14-21, 히 1:1-6, 2:9-11, 2:14-17, 7:19, 7:24-28, 8:6-13, 9:13-15, 10:10-23, 요1 4:9-10, 4:15, 계 1:5-6, 11:17 27. 마 20:28, 26:53-56, 막 15:27-28, 눅 24:7, 24:26, 24:44-48, 요 3:13-17, 4:34, 12:23, 행 3:18, 13:28-39, 요1 3:5, 4:10

그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sup>28</sup>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자들에게 의하여 원래의 의미로 복원될 것이라고 요엘에는 쓰여 있습니다.<sup>29</sup> 제가 거의 언제나 사용하는 성경은 흠정 영역 성경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장은 원본 아람어 판으로부터 발췌되었는데, 흠정 영역 성경에 이 부분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어 번역가들에 의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를 위하여 탄생하신 이유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꾸밈없이 보여 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영속시킬 것이며, 그들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힘,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힘, 그리고 또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승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에 의하여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하나 하나와 생명, 그리고 권능은 그들 안에 살아 있어, 그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결국은 죽어 없어질 그들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하여 세 부분으로 된 인간적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 자체로 변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sup>30</sup>

그리스도의 운명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으실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보여 줍니다.<sup>31</sup>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28. 마 22:9-10, 28:19-20, 막 16:14-15, 16:20, 눅 14:23, 24:46-47, 요 21:14-17, 행 1:8, 5:29-32, 10:36-43 29. 골 1-2장 30. 롬 8:6-11, 요1 3:2 31. 사 9:6-7, 마 1:23, 고전 15:24-25, 엡 1:17-23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립보서 2:9-11).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태복음 28: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승리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아람어를 말하는 여자들과 사도들은 한 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세상이 자기를 버릴 것이며 그들(사도들)이 삼일 동안 잠시 믿음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32</sup>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사도들과 나머지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늘 자기와 함께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sup>33</sup>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몸 안에서 거하시며 활동하셨습니다.<sup>34</sup>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53).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충실성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 줍니다.<sup>35</sup>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태복음 26:42). 명백히 아버지께서는 예수에게 모든 시련 과정 동안 그들이 함께 있을 것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sup>36</sup>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은 지금도 아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쓰이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중동에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자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2. 마 26:31-34, 막 10:32-34, 요 7:7 33. 요 1:1-3, 1:14, 8:16, 8:29, 14:6-11, 16:32, 17:18-23, 요 15:7 34. 요 8:16, 14:23, 16:32 35. 요 8:29, 11:41-42, 14:8-9, 17:1-5 36. 마 11:27, 요 5:19-29, 8:29, 12:23-32, 13:31-32, 14:9-11, 14:23-26, 16:14-16, 16:26-28, 17장, 엡 2:13-18, 요 1:23

진정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결코 자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sup>37</sup>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안식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고 거하시며 활동하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sup>38</sup>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sup>39</sup>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19).

만일 우리가 자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당장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sup>40</sup> 우리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sup>41</sup>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신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거하고 활동하시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sup>42</sup>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저가[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므로[돌보아 주시므로],"(베드로전서 5:7)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sup>43</sup> 만일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sup>44</sup> 평화도 기쁨도 그리 없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베드로전서 1:8)을 주실 것입니다.<sup>45</sup>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하나님)의 성전, 즉, 여러분의 몸 안에서 거하고 활동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37. 창 9:5, 출 20:13, 신 5:17, 잠 28:17, 롬 13:9, 갈 5:19-21, 벰전 4:15, 계 21:8 38. 요 6:56, 14:16-20, 롬 8:11, 고전 3:16-17, 6:19-20, 고후 6:16, 4:6-7, 골 1:27, 요1 3:24, 4:12-13, 4:15-16, 요2 2 39. 고후 5:6-11, 빌 1:21-25 40. 창 9:6, 출 20:13, 신 5:17, 고전 3:16-17, 계 21:8 41. 신 4:30-31, 시 94:14, 렘 10:10, 요 14:18, 히 13:5 42. 출 15:26, 23:25, 시 103:2-3, 사 53:5, 벰전 2:24 43. 시 23편, 95:7, 요 10:2-16, 10:27-28, 히 13:20-21, 벰전 2:21-25 44. 레 26:3-12, 신 5:29, 28:1-14, 시 23편, 요 4:14, 6:35, 엡 1:22-23 45. 신 29:9, 욥 36:11, 사 1:19, 12:2-6, 합 3:18, 딤후 1:7

### 그들은 그분을 희롱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질책하고 희롱하였던 사람들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시편 22:7-8).

신약 성경은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선지자가 사용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로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었는지를(마태복음 27:39-44 참조 바람)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구원하실지라"(마태복음 27:41, 43).

### 그분의 인간성, 목마름, 그리고 대중들의 멸시를 받으심

예언 기록에는, 그밖에도 놀라운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시편 22:13-15).

메시아가 대중들의 멸시를 받으심--"내게 그 입을 벌림이"(시편 22:13)--은 신약 성경 시대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지킬"(마태복음 27:36)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작열하는 태양이 무심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극심하게 연약하시고, 땀 흘리시며, 목마라하시는 예수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시편 22:14-15).

예수의 인간성과 목마름을 신약 성경은 간단히 한 줄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한복음 19:28).

### 그분은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만 매단 몸의 무게로 인한 탈골에서 오는 고통과 같은, 메시아가 받으신 끔찍한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시편 22:14). 더욱이, 심적 영적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는 실로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은...내 속에서 녹았으며"(시편 22:14). 결국, 그분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시편 22:15).

신약 성경 기록에는 그리스도가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요한복음 19:34) 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하는 것은 (로마 군병의 창으로 찔리기 전에 벌써) 심장이 파열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림프액이 붉은 피와 분리되어 있어, "피와 물"이 생겼을 것입니다. "림프"라는 단어는 라틴어 "림파"에서 나온 말로 물을 의미합니다. (요한1서 5:6도 참조 바람.)

### 그분의 겉옷을 나눔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시편 22:18, 요한복음 19:24).

절묘하게 세밀한 사항이 극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것은 모든 예언들 중에서도 일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영감을 받은 선지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과 관련하여 천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전해질 이야기를 쓸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사소해서,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내용을 다룬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 예언을 쓰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 예언을 실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 중--군병들이 그분의 "수족을 찔렀을 때"--에, 메시아의 겉옷을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사소한" 세부 사항이 추가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이나 예언에 관해서 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종교적 의미조차도 전혀 몰랐던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또 다른 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요한복음 19:23-24, 시편 22:18).

따라서, 불분명한 예언 하나가, 천년 동안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다가, 증거로, 살아있는 기적으로 나타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예언 하나면, 어떠한 회의론자라도 진실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복음서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 예언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줍니다.

### 메시아의 부활

그토록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신 이 메시아는 도움을 받게 되고(시편 22:19), 건지어지며(구원되며)(시편 22:20),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집니다(시편 22:21). 그분의 기도는 "응락(응답)"(시편 22:21)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시편 22편 21절은 첫 단락의 마지막이고, 시편 22편 22절부터는 새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건지어지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시편 22:22).

물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째 되던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증거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사도행전 2:23-24).

### 요약

이 시편에서 보여드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상세하여,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쓰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받아쓰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장 **하찮은** 사실이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못지않게 정확히 밝혀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었음을 감안할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만큼 믿기 어려운 예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에서 로마가 건설되기 수 세기 전에,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지기 십 세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 (나)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심에 관한 **이 대단한 예언**은 그리스도 시대보다 700년 앞서 쓰여졌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오는 영광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 자체를 능가하여, 이룩한 것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고 어떤 해설자는 말합니다.

이 장에는 역설 혹은 언뜻 보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의 수만큼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본체(와 그분의 일로)만 풀 수 있는 예언적 수수께끼를 제시하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이시나--열매를 많이 맺으십니다;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시나--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진 분이십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시나--구세주로 정해진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시나--살아나십니다; 자손이 없으시나--수많은 씨를 보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되게 하나--그분은 부자와 함께 묻히십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시나--영광을 누리십니다; 짓밟히시나--승리를 하십니다; 정죄를 받으시나--정죄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묘실이 활짝 열리고, 죽으러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기 위하여 오르실 때까지, 이 역설들은 문제로 남습니다.

예언은 "보라, 내 종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사야 52:13부터 53:12까지의 전체 단락의 주제입니다. 이 단락은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여호와와 종"

답이 주어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시나요? 자기를 가리킵시나요, 타인을 가리킵시나요?"(사도행전 8:34)입니다. 옳은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한 개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sup>46</sup> 전 세계 역사상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46.** 어떤 비기독교인들은 이 장이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일컫는다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다섯 가지 사실이 이사야 53장의 주제가 유대인들이 아닌 **메시아**임을 증명해 줍니다:

(1) 이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자라나기를"(이사야 53:2), "그는 멸시를 받아서...간고를 겪은 [자]"(이사야 53:3), "그가 찔림은"(이사야 53:5), 그리고 이 장의 나머지 모두도 한결같습니다.

(2) 이사야 53장 8절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내 백성"(이스라엘)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그분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한 개인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백성"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3) 그분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이사야 53:7-9).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4) 그분은 기꺼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이사야 53:12) 하며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또한, 나라가 아닌 한 개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자의로, 자발적으로, 남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 그분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이사야 53:7) **반항함이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에 열린 자들에게, 말처럼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죄 없고, 자발적이고, 반항함이 없으신 한 **개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정신을 몰두하여 이 단락(이사야 52:13-53:12)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복음서를 펴서 예수에 관하여 쓰여진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서서, 이 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역사상 이 예언은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에게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장에 나오는 예언적 기사와, 메시아가 어떻게 거부당했으며,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높임을 받으셨는가를 묘사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다음 일들에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예언들은 수학 계산만큼이나 정확하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1) 메시아의 놀라운 "높이여지심," 이사야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이사야 52:13).

이 단락(이사야 52:13-53:12)에는, 메시아가 받으신 모욕의 깊이가 제시되기 전에, 가장 먼저, 최후에 그분에게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것임이 확실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에서, 표현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는 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 표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생각의 고리를 형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실 것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후에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이 실현될 때 보여지는 세 가지 주요 단계--**부활, 승천, 그리고 높이어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일시적으로 그분이 깎아 내려지는 것에 대한 충격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메시아의 최후의 결말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 하나님의 종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르는 것이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이 솟아 지극히 높은 곳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끝내 높이 어지시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으로--"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3).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립보서 2:5-9. 또한 마태복음 28:6, 사도행전 1:3, 1:9, 에베소서 1:20-23도 참조 바람).

#### (2) 메시아의 끔찍한 "학대," 이사야 52:14: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이사야 52:14).

메시아가 높이어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신 사실(이사야 52:13)이 놀라운 일이라면,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그보다 더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몇 시간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혹독하고 거칠게 다루어지셨으며, 주먹질과 채찍질, 그리고 그 밖의 갖가지 방법으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진 채, 예수는 십자가에 세워지며, 그분의 수족에는 못들이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따른 고통으로 그분의 모든 신경과 근육은 "고통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영혼의 고통까지 더해진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일그러져, 거의 사람의 형상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주어져 있듯이, 구약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sup>47</sup>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sup>48</sup>"(요한복음 19:1-2).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때리고 거칠게 다루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태복음 26:67),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여...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마태복음 27:28-30).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견디어 내신 것은, 예언의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참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그 어느 누가 과연 그와 같은 메시아가 되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 메시아의 얼굴은 상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의 온 몸 또한 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실현은 완성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땀, 가시 면류관 자국, 얼굴에 뱉어진 침, 머리에 가해진 타격으로 그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채찍질과 주먹질, 손과 발에 박힌 못, 몸의 무게로 어그러진 뼈, 결정적으로 옆구리를 찌른 창으로 그분의 몸은 손상되었습니다. 거기에, 극도의 정신적 괴로움과 영혼의 슬픔을 더해 보십시오. 이런 결과로, 그분은 너무나 상하셔서,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구세주가 받으신 끔찍한 고난의 강도를 겸손하게 묵상해 보면서, 이 모두의 원인이 된 죄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마음을 숙여야 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모두를 짊어지신 그분에게 더 큰 사랑과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47. 채찍질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채찍은 흔히 가죽 끈 여러 개를 손잡이에 동여매어 만들어졌습니다. 가죽 끈 끝에는 때때로 날카롭게 깎은 쇠나 돌 조각들을 달아매어서, 맞는 사람의 살이 베이고 찢기어, 온 등이 피로 범벅이 되어 걸쭉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48. 성경의 땅들에서는 길이가 이, 삼 인치 되는 가시들이 나옵니다. 그 가시들은 마르면, 아주 딱딱하고 뾰족해져서 바늘만큼 날카로워집니다. 그러한 "면류관"이 이마를 누르고 씌워지게 되면, 살갓 수십 군데를 찌를 것입니다. 이에 따른 통증은 대단할 것이며, 뚝뚝 흘러내린 피로 머리카락이 온통 헝클어져서 무서운 형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3) 열방에 뿌려져서 그들을 "놀라게" 할 메시지, 이사야 52:15:**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이사야 52:15).

주의를 끌어 모으고,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들의 신앙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들의 형상으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출하시어, 그 장면을 **시공을 초월하여 강한 인상으로**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보리의 기억에는 가장 무딘 자들도 놀랐으며, 마음이 완전히 닫힌 자들도 움찔했으며, 가장 둔감한 자들도 감동하였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합니다. **갈보리가** 이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들에게 공의와 의를 의롭게 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21). 복음은 많은 자들을 **놀라게 하여**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메시지, 이사야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이사야 53:1).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에 관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나, **메시아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 중에는 이를 믿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예언의 실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요한복음 12:37-38).

**(5) 메시아의 초자연적 탄생과 영적 성장, 이사야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즐기 갈아서"(이사야 53:2).

메시아의 초자연적 탄생은 "마른 땅에서 나온 즐기 갈아서"라는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즐기가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 가지 필수 요소(수분)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기적--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기적--으로 일어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분의 초자연적, 그러면서도 자연적인, 성장에 관한 다음 역설도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정상적으로) "그는...**자라나기를**" 할 것이나, 그것은 "주 앞에서" 그리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가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메시아가 자라날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는 자연적 주변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어린 시절에, 귀하고 건장한 순이시며, 하늘의 아버지의 주의 깊은 보살핌 안에서 자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나라 가운데에 있는, 고난과 죄악, 그리고 불신의 사막에서 자라십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분은 "자라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화려함이나 업적을 업고서 돌연히 세상에 불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느리고 조용한 성장 법칙에 순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임하시는 방법,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영성(靈性)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는 훌륭한 외관과 화려함을 갖추고 권력을 가진 성숙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림** 때를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기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누가복음 2:40).

(6) 메시아의 세대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3:2: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이사야 53:2).

메시아가 오셨을 때, 힘센 왕과 정치 개혁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보지도 않았고,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과 일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언을 잘못 읽었던 관제로, 그들은 "여호와와의 중"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서 아무런 매력이나 관심을 끌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림 때의 메시아의 일--자신의 영혼을 "속진제물"로 바치는 일--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7)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셨습니다,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3).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다는 것의 실제 의미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게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서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저명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다음 기록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요한복음 7:47-48. 문맥을 살펴보시기 바람)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메시아를 백성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없는 분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예언을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이 예언의 진실성을 완전히 확증해 줍니다.

(8) 메시아는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53:3-4: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이사야 53:3-4).

여기에서 강조되는 점은, 메시아가 온갖 마음의 슬픔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는 실현에서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이러한 인정 어린 고난으로 인해, 또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거부되었을 때, 그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을 때, 그분의 슬픔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하였을 때--"예수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을 때," 그분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한복음 1:11).

무엇보다도 슬픈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 채, 그저 "하나님에게 맞은" 분으로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라디아서 3:13).

**(9) 죄인을 대신하여 받은 메시아의 고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사야 53:4);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5);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

다[지우셨도다]"(이사야 53:6); "[메시아인 예수가 형벌을 받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죄]을 인함이라"(이사야 53:8);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사야 53:10);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깊어지리라]"(이사야 53:11);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이사야 53:12).<sup>49</sup>

이 장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죄인을 대신하여 받은 메시아의 대리 고난**입니다. 이 훌륭한 장에는 통틀어 열 두 절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받은 대리 고난의 교리가 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단락 전체(이사야 52:13-53:12)가 이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고"(고린도후서 5:21),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고린도전서 15:3) 때에야 비로소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지우셨도다]"(이사야 53:6).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인간에게 떨어졌어야 할 모든 뜨거운 심판의 불길이 대신 그분에게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즉각 그리스도에게 가장 심한 굴욕이 되었으나, 동시에 가장 고귀한 영광이 되었으며, 이 사건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온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깊어지셨으니]"(베드로전서 2:24).

**(10) 메시아는 아무런 불평 없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7).

49. 신성을 가진 저자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에 관해서 자주 반복하고 또한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제시하여, 비록 누군가가 한 군데서 성공적으로 이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틀림없이 또 이 내용을 접하게 만들므로써, 어떠한 종류의 독창력이나 학습으로든지 이 구절로부터 대속에 관한 가르침을 제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고통받는 자들은 보통--특히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에--중얼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지만, 메시아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도록" 지정된 일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치시어, 양처럼 되어 도살장으로 가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뜻이 그리하였기에, 메시아는 장엄하고 고결한 침묵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견뎌 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끝없는 사랑의 수수께끼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고, 잘못 고소를 당하고,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침이 뱉어지고, 박해 당하고, 거칠게 다루어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분노의 불길이나, 자신을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불평의 소리는 하나도 없이, 오직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반대되는 증언을 한 이후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마태복음 26:59-63 참조 바람).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이 전 과정은, 자연과 인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다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는 이 생소한 예언과 그보다 더 놀라운 실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끌려가셨을 때, 메시아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이유를 변론해줄 "대변자"나 결백을 밝혀줄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3:8:**

"그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그를 위하여] 말하기를... 하였으리요"(이사야 53:8).

"사형을 결정하는 재판"에서 종교 평의회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재판에서는 이

관습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의회 앞에서 황급하게 진행된 형식상의 소송 절차는 자신들의 법규에 완전히 반한 것이었으며, 또한 모든 권리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패한 유대 계급 조직과 당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 세력(로마)의 대표자들 앞에, 변호인이 없이 홀로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을 편드는 사람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유다도 예수를 배반하였고, 베드로도 선서로써 그분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도들 또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마태복음 26:56).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의 기간 중 그분을 섬기게 된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마태복음 27:55)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각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그분의 편에서 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몇 시간 동안 고난으로 지쳐 상하신 몸이 감각을 잃고 난 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믿음이 깊은 여자들, 그리고 아끼시던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음 몇 시간 동안, **그분은 혼자--완전히 혼자--이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예수처럼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식 관원들에게 체포되신 것이 **아니고**, 군중들, 폭도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마태복음 26:47). 그들의 접근 방법이 옳지 않았음을 예수 자신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6:55-56).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마태복음 26:59) 그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도록 비밀리에 매수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은 밤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위법이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헛되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타당하게 유죄 판결을 내릴 구실을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답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시킨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를 무모하게 외칠 뿐이었습니다(마태복음 27:22-23 참조 바람). 그리고, 이성과 공의의 말이 아무런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내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더 이상의 저항 없이 그 사건으로부터 손을 떼고 예수를 군중들에게 넘겨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마태복음 27:22-26 참조 바람). 이는 모든 역사의 연대기를 통틀어, 공의가 실패한 경우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죄는 빌라도에 의해서만 증명된 것이 아니고--"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요한복음 19:6)--메시아에 관한 옛 예언에 의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이사야 53:9).

**(12) 죽음의 순간, 메시아의 굴욕은 끝이 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악인과 함께" 묻으려고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묻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53:9:**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이사야 53:9).

보통 범죄인으로서 죽음에 처하여졌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예수의 시체는 벽 너머로 내던져져, 도벳(예루살렘의 서쪽)의 불 속에서 쓰레기처럼 태워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리 고난이 끝났을 때, 생명 없는 시체에 더 이상의 무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통치자들이 예수도 두 강도들과 똑같이 불명예스럽게 매장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마태복음 27:57-60)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의 역사와 예언의 말씀이 일치함을 봅니다. 이와 같은 **예언과 실현의 일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일을 고안해 낼 수는 없습니다.

적들이 계획하고 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예수께서 고귀하게 묻히시게 된 이유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고난자의 절대적인 결백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실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매장에 관하여 기술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여 읽어보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마태복음 27:57-60).

**(13) 메시아의 영혼과 육체가 속건제물로 바쳐진 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그[예수의] 날을 길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씨, 즉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10:**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이사야 53:10).

메시아가 죄를 씻어주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친히 바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그[예수의] 날을 길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희생한 결과로 "그[자신]의 씨"--구원받은 영혼들--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이 역설의 실현은 "성경대로...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고린도전서 15:3-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은 시편 16:10과 같은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의 손에서 성취될--메시아는 열의를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셔서, 진정 이스라엘과 열방에 구원과 의를 가져오실--것입니다(이사야 42:4 참조 바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시작하신 가르침과 행적--제자들 안에 거시하면서 활동하심--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1: "삼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씨를 보셨고, 그분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완성된 승리를 이룰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사야 11:9)입니다. 진실로, 우리 구원의 지휘관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히브리서 2:10) 하십니다.

**(14)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희생을 "만족히" 여기실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게 됨으로 해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짚어지리라]"(이사야 53:11).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진리의 예시를 보게 되는데, 이는--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구원을 사주심으로 해서--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어짐,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음에 관한 진리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완전히 밝힌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어짐**에 관한 이 진리는 신약 성경의 주되고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

치는 하나님의 의니...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2-2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8-9). (또한 로마서 4:5-6, 5:15-19, 디도서 3:5도 참조 바람.)

믿는 자들 위에 내려진 모든 은혜가 메시아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깊어지리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환 개념을 시사하는 대조가 보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의를 얻을 것이고, 그분은 그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죄인들]로 하여금 저[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21).

**(15)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기이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53:12:**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사야 53:12).

여기에서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시편 22편에서 메시아의 옷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예언에 담겨있는 진정한 세부 사항을 보여줌으로써, 이 예언이 진짜임을 증명해 줍니다. 예언에 담겨있는 세부 사항은--실현이 그 예언과 일치할 때--즉각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 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범죄인으로 헤아림을 받고 간주되도록 허락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겪으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경(이사야

53:12)을 인용하셨음을 상기해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기록된 바 저[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누가복음 22:37).

그러므로, 이 예언과 실현은, 예언과 구세주의 고난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일치를 보여 주는 경우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사실은 마태복음 27:38에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대리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거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 사실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짊어지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히브리서 9:26, 9:2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예수]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3:18).

이 장(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글,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술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에서 이루어진 실현을 보여 주는 글들은 많이 쓰여졌습니다. 중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며 이러한 현상들--글로 나타난 기적들--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과 실현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에 저자인 하나님의 소인--천국의 표시, 영원의 각인--이 찍혀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기 수세기 전에 그려진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 예언의 묘

사와, 복음서에 포함된 메시아의 삶,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한 기술이, 모든 특징이나 상세한 세부 사항 면에서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단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일 것입니다.

## V.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기술하는 예언

###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그리스어: "크리스토스")와 "메시아"(헤브루어: "하-마시야")라는 단어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sup>50</sup>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마서 5:12) 이후, 인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줄 중개자, 즉,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1)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 암흑 속에 남겨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2)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길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영혼을 다시 얻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여야 하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불길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하늘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3)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항적인 본성을 갖게 되었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도

50.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예로는 레위기 4:3, 4:5, 시편 2:2, 다니엘 9:24, 사무엘상 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됩니다. "메시아"(헤브루어: 하-마시야, 기름 부음을 받은)라는 표현은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상징-그림이었던 대제사장(레위기 4:3, 4:5, 4:16 및 6:22)에게 적용됩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열 여덟 번 나오지만, 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열 번 쓰이지만, 여기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2, 20:6, 28:8, 84:9, 89:51, 132:10, 132:17은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시편 2:2와 다니엘 9:25, 9:26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두드러진 구절들입니다.

표출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왕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한 왕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자신이 선택하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모두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인 하나님의 독생자(하나님 자신,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를 통하여 처음부터 인간에게 완벽한 선지자와, 제사장, 구세주, 그리고 왕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계급의 관리들--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에 위임되었습니다: 선지자(열왕기상 19:16 참조 바람), 제사장(레위기 8:12, 출애굽기 29:21), 왕(사무엘상 10:1, 16:12-13).

### (1)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인간의 형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다음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보여주셨느니라]"(요한복음 1:18).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한복음 14:9-10).

### 선지자로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

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신명기 18:18-19).

모세는 하나님의 복종하는 종으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의 가르침과 행적의 원형이 되도록, 다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선택되었습니다. 모세가 인간들에게 **율법을 세운 자, 지도자, 왕(장관), 전달자, 선지자**(하나님의 대변자), 그리고 **중개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예수가 등장할 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신명기 34:10-12, 민수기 12:6-8). 그리스도만이 유대 역사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행사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작은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정말 옳았습니다(요한복음 6:14):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21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위대하였다고는 하나, 그리스도는 그보다 한없이 더 위대하셨습니다. "중"으로서 모세는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완벽하고 전지(全知)하시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히브리서 3:2)하신 **선지자**(히브리서 3:5-6)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행한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사도행전 3:22-23).

그리스도의 예언적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언급은 신구약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1과 누가복음 4:18은 둘 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적 가르침과 행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 (2)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여졌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였으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식하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연민에 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히브리서 5:1-4 참조 바람). 이 제사장들은--아론이 그들 중 첫 대제사장이었음--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자신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히브리서 5:3, 7:26, 9:7). 게다가, 제사장직은 단명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하여 자주 교체되었습니다(히브리서 7:23). 또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히브리서 10:4) 못하였기에, 그들이 바친 제물은 단지 상징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한 희생물로 바치시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번제에 대한 옛 계명에 따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히브리서 7:26-28). (히브리서 9:11-14, 9:25-26도 참조 바람.)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한 온전한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습니다(히브리서 10:10-14, 9:25-28, 7:23-28 참조 바람). 히브리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주시어, 인류의 죄를 씻어 주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신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영혼 모두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이사야 53:5, 53:10).<sup>51</sup>

아론과 그의 후손이 주장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서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속죄의 필요성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얻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나(히브리서 9:22 참조 바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도록 선택된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었습니다(히브리서 5-7, 시편 110:4 참조 바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히브리서 7:3,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3)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시편 2:6).

사람은 하나의 개체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관장할 **왕**(통치 권위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족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재판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왕**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왕**--전적으로 의롭고 인정 어린 통치를 하실 "만왕의 왕이시

51.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나병 환자처럼 될 자였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쓰게 된 자"가 되셨습니다(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53:4이 이를 암시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전서에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경우, 그분이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저지르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처형을 당하셨던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기쁨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제물로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죄가 되시도록 기쁨 부음을 받으셨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원토록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며 만주의 주"--을 갖게 됩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 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예레미야 23:5-6).

"여호와와 신이...그[메시아] 위에 강림하시리니...공의로...심 판하며"(이사야 11:2, 11:4). (스가랴 9:9, 역대상 17:11-14, 사무엘하 7:12-17도 참조 바람.)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과업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세 명의 위대한 사람들--선지자로서는 모세, 제사장으로서는 멜기세덱, 그리고 왕로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사무엘서에 열 여덟 번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땅에 오실 분을 일컫는 말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지칭합니다.

"여호와께서...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사무엘상 2:10).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보통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때,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릴 왕국을 이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1-9, 미가 4:1-5 참조 바람.)

시편의 많은 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45편, 47편, 72편 참조 바람.)

시편 2편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시온산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시편 2:6)과 열방을 유산으로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시편 2:8).

시편 45편에서 우리는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화로운 신부를 봅니다.

시편 47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온 땅에 왕으로 즉위하신 메시아를 봅니다(시편 47:2, 47:7).

시편 72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 기간동안의 의로움에 관하여 가장 온전한 묘사를 보여 줍니다:

- (1) 메시아는 왕의 아들로 밝혀집니다(시편 72:1)
- (2) 메시아 왕의 온전한 의(시편 72:2-4)
- (3) 메시아 왕의 온전한 통치(시편 72:5-7)
- (4) 메시아 왕의 온 세상 지배(시편 72:8-11)
- (5) 메시아 왕의 성스러운 연민(시편 72:12-14)
- (6) 메시아 왕의 통치는 물질, 영적 번영을 낳습니다(시편 72:15-17)
- (7) 메시아 왕의 통치 중 주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시편 72:18-19)<sup>52</sup>

###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요한복음 17:9),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히브리서 9:14)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9:16).

히브리서 1:9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여줍니다:

**52.** 메시아는 제사장-왕으로서도 나타내집니다: "제사장이 자기 위[왕위]에 있으리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스가라 6:12-13의 메시지는 확실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보다 더 위대한 분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글들이 그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이 메시지가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자기 곳에서 돌아나서"--어린이로서 자연적, 그러면서도 초자연적인 성장을 할 것임(이사야 53:2)--"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이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심(에베소서 2:21-22)--"그가...영광도 얻고"--"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그 위[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멜기세덱으로서도(시편 110:2, 110:4)--"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왕으로서 메시아는 평강(평화)을 가져오며(시편 72:7, 시편 46:9), 제사장으로서 그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골로새서 1:20, 에베소서 1:7).

메시아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구절이 예레미야 30:21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메시아는 왕-제사장일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백성을 "통치"할 것이며, "내[하나님]가 그[메시아]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예레미야 30:21) 그가 온전한 **증보(증개자)**로서 "내게[하나님에게] 접근"할 것입니다(디모데전서 2:5).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요한계시록 5:5)--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역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할[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실]"(히브리서 7:24-28)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앞에서 지적했던 누가복음 4:18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사야 61:1).

요한계시록 1:5에서,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보여줍니다: "또 충성된 증인[선지자]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왕]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제사장]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히브리서 1:1-3에서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제사장]을 하시고, [왕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보라," 하나님의 "가지"를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인 "가지"(순, 짝)가 놀랍게도 네 가지의 쓰임새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가지와 함께 "보라"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보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목을 끄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보라"와 "가지"는 함께 쓰여서, 네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요약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사용된 "가지"와 "보라"의 네 가지 쓰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왕으로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예레미야 23:5-6).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스가랴 9:9). 이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보여지는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2) 주님의 종으로

"[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스가랴 3:8).

이는 그리스도가 주님의 종으로 보여지는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3) 사람의 아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스가랴 6:12).

이는 그리스도가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누가복음에 해당합니다.

(4)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이사야 40:9).

"그 날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이사야 4:2).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로 보여지는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메시아가 "가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헤브루어 성경--예레미야 23:5-6의 생각이 반복된 예레미야 33:15를 제외하고--에서, "가지(순, 짝)"는 이처럼 네 가지 경우에만 쓰입니다. 마치 메시아에게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듯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자주 "보라"라는 표현으로 소개됩니다.<sup>53</sup>

###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53. 고뎃(Godet)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화가가 한 가족의 저명한 아버지의 초상화를 완벽하게 그려 거기에 영원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 아버지가 역임했던 장군, 행정 장관, 과학자, 한 가족의 아버지 등의 직위를 한 장의 초상화에 모두 그려내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네 장의 초상화를 따로 그려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대리자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의 구현인 메시아, 예수를 제시하기 위하여, 복음서 저자들의 마음 위에 네 개의 각기 다른 형상을 새기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그분을 메시아--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와 종,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종"**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주님의 종" 혹은 "나의 종"으로 자주 불립니다. (이사야 42:1, 52:13 참조 바람.) "주님[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는 의와 진정한 겸손의 본보기이시고, 인간의 스승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어 드립니다. 따라서 그분은:

제 2의 아담--온전하신 인간

제 2의 이스라엘--온전하신 종

제 2의 모세--온전하신 선지자

제 2의 다윗--온전하신 왕

제 2의 대제사장--온전하신 대제사장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정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에서 보여졌듯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늘어갔으나, 이 모든 뜻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목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주님의 종"(이사야 42:1, 52:13)으로 보나, 에스겔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에스겔 34:23, 37:24 참조 바람) 봅니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이 절들에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참 목자이셨습니다(목자: 말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요한복음 10장 참조 바람.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일컫는 다른 이름들과 칭호들**

메시아는 또한 "돌" 혹은 "반석"(이사야 8:14 참조 바람); "기초(모퉁이)"(이사야 28:16); "못"(이사야 22:21-25); "싸우는 활"(스가랴 10:4); "실로"(창세기 49:10); "별"(민수기 24:17)이십니다.

### 구약 성경에서의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실은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으며, 창세기부터 하박국까지 약 백 번 가량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히브리어: **여슈아**)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때마다 매번, 특히 "나의," "너의," 혹은 "그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미와 함께 쓰일 때, (그 단어가 비인칭 의미로 사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마태복음 1:21에서 쓰인 예수(히브리어: **여슈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주의 사자[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여슈아, 구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몇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4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슈아[예수]**를 기뻐하리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2:2-3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이는 예수와 예수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면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를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체화, 의인화 된 것으로 이해하여, 이 구절들을 히브리어에서 쓰인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여슈아**[육신이 되시기 전, 외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가리킴; 요한복음 1:1]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여슈아**[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 요한복음 1:14]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여슈아**[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갈보리에서 흐르는 구원의 물; 요한복음 7:37, 7:39, 요한복음 4:10, 4:14]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이사야 12:2).

## VI.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그리스도)의 신성

### 메시아의 이중성

인간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분의 **이중성**--그러나 단일 품성을 지니신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되신 하나님-인간이면서 분리할 수 없는 품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이름과 명칭에서 볼 수 있으며,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 여호와, 엘(헤브루어), 그리고 엘로힘(헤브루어)과 같은 이름과 명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이 메시아(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히브리서 1장의 첫 여섯 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다음의 열 가지 사실이 보여집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입증해 줍니다. 이 사실들은 평범한 인간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1) "선지자들"이 아무리 성령에 감동되었다고는 하나, 결국은 인간에 불과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도(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히브리서 1:1-2): "옛적에 선지자들로...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히브리서 1:2)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므로, 후사[후계자]이십니다.

(3) 모든 세계(우주)는 그분(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히브리서 1:2). 이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존재하고 계셨음을 입증해 줄뿐만 아니라,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행위자이셨

음을 보여 줍니다(요한복음 1:1-3): "만물이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히브리서 1:3).

(4) 태양의 광채가 태양과 관련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히브리서 1:3).

(5)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도장에 새겨진 형상을 재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본체의 형상[도장 찍음]이시라"(히브리서 1:3).

(6) 그분(메시아, 그리스도)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으신 거대하고 거의 끝이 없는 이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브리서 1:3); 골로새서 1:16-17: "만물이 그[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7)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 온전한 사람조차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길 잃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는 끝없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죄를 정결케 하는[씻어 주시는] 일을 하시고"(히브리서 1:3).

(8) 하나님의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보좌를 공유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만천하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3).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좌를 공유하고 계심은 요한계시록 22:1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오직 한 개]."

(9)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가 천사보다 열마름 뛰어남은"(히브리서 1:4).

(10) 또 다시, 아버지와 메시아 사이에 부자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천사들까지도 그분[메시아]을 경배하도록 명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마태복음 4:10). "네가 내 아들이라...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히브리서 1:5).

(히브리서 제 1장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들과 함께) 히브리서 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된 세 가지의 주된 이름과 명칭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된 두 가지의 주된 이름으로 메시아가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메시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된 이름 "**엘로힘**"이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는 시편 45:6로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어[**헤브루어, 엘로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히브리서 1:10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메시아)에 관하여 또 이야기하실 때에, 그를 **주**라고 부르십니다. 이 절은 시편 102:25-27로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절들은 메시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16, 102:19, 102:21-22을 참조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뇨"(히브리서 1:10-12).

이 말씀(히브리서 1:10-12)에서 다음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 (1) 아버지께서는 (1:8에서와 같이 1:10에서도) 여전히 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 (2)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그대의 손으로 지은 바라"(히브리서 1:10).
- (3)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원할**--**불변할**--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지 만물은 옷처럼 낡아

질 것이나, 아들(메시아)에 대해서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히브리서 1:12)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메시아에 관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해설을 두 가지 곁들입니다:

-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뇨?"(히브리서 1:13)라고 하신 것은 메시아의 지위가 높아져,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또다시 보여 줍니다.
- (2)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히브리서 1:13, 시편 110:1)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결국 **영원한 승리를** 이루고야 말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토록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증언하셨고, 또한 **메시아의 신성**을 충분히 보여 주는 15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진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 진실을 받아들임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sup>54</sup> (요한복음 8:24).

### 메시아의 신성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그 예언들을 신약 성경의 실현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 (1) 여호와와 메시아를 자기의 "짹"(동격)이라고 부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짹된 자를 치라"(스가랴 13:7).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30).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빌립보서 2:5-6에서 그리스도가

<sup>54</sup>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내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미하며(출애굽기 3:14 참조 바람),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이사야 9:6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인성, 신성, 그리고 왕의 신분에 대한 예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알아볼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게는 다음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성의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메시아의 인성],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삼위 일체 안에서의 영원한 아들 자격]...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이 중 마지막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헤브루어에서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이름들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헤브루어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헤브루어: 엘, 엘로힘)으로 불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이사야 40:9-10).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불리는 시편 45:6은 앞에서 벌써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시편 47:7-8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재림에 관하여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하나님[엘로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실 분이 메시아(그리스도)이심은 너무

나도 많은 곳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15, 19:16, 고린도전서 15:24-25 참조 바람.)

#### (4)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도 불립니다.

스가랴 2:10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시편 47:2). (문맥으로 보아, 이 시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5-6에는, 메시아가 "여호와 우리의 의"로 불릴 것임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102:16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임을 말해 줍니다. 스가랴 14:9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가랴 14장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2:10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이것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40:3의 명명백백한 예언에서, 메시아는 여호와와 하나님, 두 가지로 불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은 인용되어, 그리스도와 예비자 세례 요한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줍니다(마태복음 3:1-3 참조 바람).

스마냐 3:14-15와 이사야 12:6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스마냐 3:14-15).

만군의 여호와가 메시아의 호칭임은 이사야 6:1-3, 6:9-10

을 요한복음 12:40-41과 비교하고 이사야 8:13-14을 베드로전서 2:5-8과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의 위대한 "내가[나는]...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호와와는 이사야 43:10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8:24, 13:19, 4:26, 마가복음 13:6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3:19). 예수께서는 자신의 본체나 일을 특별히 나타내 보이실 때와 연관지어 "내가[나는]...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요한복음 10:14).

"내가 문이니"(요한복음 10:9).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한복음 8:1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6) 하나님의 헤브루어 명칭인 "하-아돈"과 "아도니"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게 주어집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하-아돈]가 홀연히 그 전[성전]에 임하리니"(말라기 3:1).

주님(하-아돈)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길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주님은 바로 메시아--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아도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편 110:1).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 구절을 자신의 설교에서 인용하였습

니다. 사도행전 2:34-36, 마태복음 22:41-45를 참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그의 주님임을 증명하십니다.

**(7) 구약 성경도 메시아가 천지창조 전에 존재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8:22-24 말씀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미리 존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의인화된 이 "지혜"의 묘사가 실제로 영원한 메시아의 묘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미리 존재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한복음 1:1-2).

**(8)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여호와와 영광"--하나님을 예시하는 구절--으로 보여 줍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이 5절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것임은 이사야 40:3-4 말씀에 의해 증명됨).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신성**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메시아)의 신성에 관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앞에서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 가르침은 신약 성경 전체에 배어 있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곳이 수십 구절,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곳이 수백 구절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암시하고 있는 구절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마가복음 2:10 참조 바람).
- (2) 경배를 받으실 그리스도의 권리(마태복음 2:11, 8:2, 14:33, 요한복음 1장).
- (3)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권능(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기적들을 참조 바람. 예들 들면, 마태복음 10:1, 9:25, 마가복음 2:10-12, 3:5, 3:10-11, 요한복음 11:41-44).
- (4) 그리스도의 죄 없고 신성한 삶(히브리서 7:26, 베드로 전서 2:22, 요한1서 3:5, 누가복음 18:19.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를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 (5)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속죄의 죽음--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류의 죄를 씻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2:9).
- (6)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육체적 부활(로마서 1:4).
- (7) 신성만이 이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많은 약속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1:28-29, 28:19-20, 요한복음 14:2-3.
- (8) 인간들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요한복음 14:1-3).
- (9)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라는 사실(요한복음 1:1-3, 골로새서1:16-17).
- (10) 그리스도가 신성의 모든 특성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편재(遍在, 두루 퍼져 있음), 전지, 전능(마태복음 28:20, 요한복음 14:23, 요한복음 3:13, 16:30, 마태복음 28:18 참조 바람).

###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가지 직접적인 기록

요한복음 1:1-3: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1:68과 1:76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놀라운 증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5, 요한복음 20:28, 골로새서 1:14, 17, 고린도전서 2:8, 디모데전서 6:14-16, 디도서 2:13, 히브리서 1장도 참조 바랍니다.

## 삼위 일체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지셔야 한다는 사실은 삼위 일체--하나님은 삼위(성부, 성자(메시아), 성신)로 존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심--의 가르침에서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요한1서 4:14). 다음은 삼위 일체와 관련된 몇몇 부분들입니다:

(1) 창세기 1:1에, "하나님"(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으나, 단수형 동사 '창조하시니라'가 따릅니다. 이는 **한 분의**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2) 신명기 6:4에서, "하나"(하나님)라는 단어는 헤브루어로 "에하드"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적 단일성이 아닌 복합적 단일성을 일컫습니다. 이 단어(에하드)는 창세기 2:24에 쓰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이 한(에하드) 몸을 이룰 지로다. 창세기 11:6, 사사기 20:1도 참조 바랍니다.

(3) 이사야 48:16, 48:17, 11:12, 42:1, 61:1, 63:7-10, 스가랴 2:10-11, 민수기 6:24-27(민수기 6장 24-26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중으로 사용되었음에도, 그 다음 27절에서 단수형 "내 이름"이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십시오)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삼위 일체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4) 많은 성경 말씀들이 삼위 일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6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이는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존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7을 참조 바랍니다.

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사야 6:8과 창세기 3:22도 참조 바랍니다.

(5) 신약 성경에서도 삼위 일체는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마태복음 3:16-17, 요한복음 14:16, 에베소서 4:4-6, 고린도후서 13:14, 히브리서 9:14, 요한계시록 1:4-5.

## VII.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에 나타난 상징과 간접예언들

성경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뚜렷하고 명확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sup>55</sup>

"상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진리의 그림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탄과 반그리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헌신된 기독교인의 삶과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선견과 계획에 의한 사람, 장소, 사물, 사건, 혹은 일련의 사건들의 형태로 성경에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언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간접 예시가 (상징을 통하여) 성경 전편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들-간접 예시를 제시하는 예언적 그림

55. 성경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심지어는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조차도 없을 정도로--모든 면에서 특별합니다. (1)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성경만이 진정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장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성경만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상징" 체계를 구약에 담고 있습니다. (3) 성경만이 믿을 수 있는 증인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 진정하고 확실한 기적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성경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인간(메시아)을 보여 줍니다. (5) 모든 나라의 역사책들 가운데서 성경만이 인물들을 편견 없이 그들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잘못까지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제시합니다. (6) 오래 된 책들 중에서 성경만이, 현대 과학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쓰여졌으면서도, 그 안에 언급되는 모든 자연의 사실과 참된 과학적 발견들과 조화를 보입니다. (7) 거의 40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 신성을 가진 저자인 하나님의 감독하에 쓰여졌음을 보여 줍니다.

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방대한 성경적 상징 분야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려고 해도 몇 백 쪽 길이의 책은 족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성경적 연구 조사 가운데서 경이로운 사실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암시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예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해되는 모든 유월절 양(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고 구운 양을 먹는 의식과 함께--출애굽기 12:1-13 참조 바람),<sup>56</sup> 제단으로 옮겨져 제사에 쓰이는 유대 제사장의 모든 예물(레위기 1-6장 참조 바람), 그리고 아벨이 제단 위의 불로 번제를 드린 때로부터 수난 주간의 마지막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바쳐진 모든 피의 제사는 어김없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수한 예언들(간접 예시)이 찬란한 영광으로 그 강렬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를 떠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예시가 특히 풍부한)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우두머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우두머리로서의 예수의 상징입니다(고린도전서 15:45-49 참조 바람).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창세기 6-9장).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한 이삭의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예수의 제사의 아주 명료한 상징이 됩니다(창세기 22장). 요셉의 삶--그의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창세기 37장)--은 100개가 넘는 특징들이 일치할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으로, 그분께서도

56. 유월절 양이 구워질 때에는 몸을 길게 관통하여 꼬챙이 하나를 찌르고 한 쪽 어깨로부터 다른 쪽 어깨로 가로질러 또 하나의 꼬챙이를 찌릅니다. 따라서, 모든 유월절 양은 십자가에 고정시켜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뿔뿔을 들어올려서(민수기 21장) 그 뿔뿔을 장대 위에 달지 않고 깃대--즉, 십자가--위에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으셨으나 동족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져 그곳에서 신부를 얻었으며, 애굽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해냈습니다(창세기 39-47장). 그리스도 또한 것처럼 자기의 동족들(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이 전해져 생명의 떡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보존하고 먹이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들 또한 살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 마지막 날에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게 됩니다(스가랴 12:10, 로마서 11:25-26 참조 바람).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뚜렷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유월절 양**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과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위에서 벌써 지적된 출애굽기 12장). 모세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방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신부를 얻고, 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돌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져 크나큰 승리로 그들을 종의 집(애굽; 이집트)으로부터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상징은 이스라엘에 초립하셨을 때 버림을 당하셨으나 결국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져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에, 몹시 흥미롭습니다(사도행전 7:22-37, 특히 35절을 참조 바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메시아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 줍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목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사울에게 버림을 받으나, 후에 그 나라에 받아들여져 기쁨부음을 받고 그들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 자기의 양을 위하여 삶을 바치는 "선한 목자"였으나 후에 **왕**으로 다스릴 위대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아론과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형상이요, 그림자이며 상징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떨어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인간들을 구해주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놋뿔**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민수기 21:5-9 참조 바람). 이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사업을 상징합니다**(요한복음 3:14-18 참조 바람).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져 거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고래의 배에서 토하여지고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메시아)의 그림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또한 "밤낮 사흘"을 지옥에 머무른 후 지옥에서 나와 부활하셨습니다(마태복음 12:40을 참조 바람).

**성막**(출애굽기 25-31장, 35-40장)은 모든 상징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의미심장한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성막 안에서의 제사 직분, 예물, 가구, 배치--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 (1) **놋단**(놋제단)은 피로 대속함을 상징합니다.
- (2) **물두멍**(놋대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함(에베소서 5:26)을 통한 정화를 상징합니다.
- (3) **진설병**(빵의 일종)이 놓인 상은 그리스도, 양식,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힘의 상징입니다.
- (4) **가지가 일곱 개 달린 금등대**(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 (5) **분향단**(분향제단)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를 기도와 애원을 나타냅니다(요한계시록 8:3).
- (6) **지성소에 설치된 속죄소**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화 방법이자 접근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8:13 참조 바람. 여기에서 나오는 세리(세금 징수원)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하나님이시여, 저를 속죄소에서 만나 주십시오"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 (7) **지성소의 궤**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대표자로서, 그리고 **중보**(중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궤는 나무로 만들고 정금(순금)으로 썼습니다(출애굽기 25:10-11).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성(나무)과 신성(순금)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등의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히브리서 9:4). 이것들은 천국에서 내려온 떡으로서의 메시아에 관하여, 그분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심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상징과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서조차도 율법은 결코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 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생명의 떡.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요한계시록 19:13).
- (나) 우리는 불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거센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과 같이 됩니다(베드로전서 1:7).
- (다) 아론의 지팡이는 뿌리도 없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신 그분은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은 막대기이지만, 생명의 왕이시고, "내가 있느니라"

이시며,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생명의 떡(예수 그리스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6:35, 사도행전 3:15, 요한복음 8:58, 요한계시록 22:13).

- (8) 장막 그 자체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심, 즉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14 참조 바람).

널판, 받침, 양장(커튼), 덮개 등의 장막과 그 의식에 관련된 모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와 절기는 인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과업을 아름답고도 점진적으로 계시하며,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이로운 상징 이야기는 이처럼 전개되어,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와 그분의 과업에 관하여 방대한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줍니다.

구약 성경 안에 제시되는 메시아적 상징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 관하여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 있는 이 놀라운 상징들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그의 대속적인 죽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보여 줍니다(히브리서 5-10장 참조 바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얻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히브리서 8:5).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징들--인간들의 삶, 장막과 그 안에서의 의식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의 사건들--을 계획하셨음은 그 상징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결론

저희는 지금까지 다음 사실들을 확실히 보여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1) 성경은, 오로지 성경만이, 진정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언은 (2)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증명**해 준다는 사실, (3) 이 메시아(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5)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6)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사실들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하여 드린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각 개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라는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하 인간에 [예수를 제외하고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바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만일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의 영혼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sup>57</sup>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사옵나이다.<sup>58</sup>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sup>59</sup>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sup>60</sup>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저의 기도와 죄 고함을 듣고 계실 줄 믿사옵나이다.<sup>61</sup> 주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사오니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sup>62</sup> 같보리 언덕에서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sup>63</sup>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sup>64</sup> 당신께서는 아무도 내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또한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sup>65</sup> 그렇기에, 당신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응답해 주시어, 제가 구원을 받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sup>66</sup> 주님이시여, 저의 영혼을 구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당신의 말씀만을 따름으로써 당신께 감사하는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겠사옵나이다.<sup>67</sup>

이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 살아 계시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더욱 더 충만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기독교

57. 시 51:5, 롬 3:10-12, 3:23 58. 마 26:63-64, 27:54, 눅 1:30-33, 요 9:35-37, 롬 1:3-4 59. 행 4:12, 20:28, 롬 3:25, 요 1:7, 계 5:9 60. 시 16:9-10, 마 28:5-7, 막 16:9, 요 2:19, 2:21, 10:17-18, 11:25, 행 2:24, 3:15, 롬 8:11, 고전 15:3-6 61. 눅 22:69, 행 2:25-36, 히 10:12-13 62. 롬 8:11, 고전 3:16, 계 3:20 63. 엡 2:13-22, 히 9:22, 13:12, 13:20-21, 요 1:7, 계 1:5, 7:14 64. 마 26:28, 행 2:21, 4:12, 엡 1:7, 골 1:14 65. 롬 10:13, 약 4:2-3 66. 히 11:6 67. 요 8:11, 고전 15:10, 계 7:14, 22:14

인들을 쉽사리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유혹들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혹에 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에 의하여 더 많이 좌우됩니다. 인간은 사악하기 그지없어 사탄과 마귀군대가 패배하여 없어지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마귀가 되고 말 것 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시고 늘 더 많은 신의 성품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냐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청이 있을 시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며 전화상담도 해 드립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14).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 계율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저희들은 각종 언어로 쓰여진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alamoministries.com](http://www.alamoministries.com))를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관한 자료도 많이 읽으시고 교회음악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알라모 크리스찬 교회는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바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성경 구입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하여 성경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알라모 목사님이 쓰신 다른 문헌들과 테이프에 녹음된 메시지를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Tony Alamo, World Pastor**  
**Tony Alamo Christian Ministries Worldwide**  
**P. O. Box 6467**  
**Texarkana, Texas 75505 USA**

기도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번호 (24시간 가능):

**(479) 782-7370**

**FAX (479) 782-7406**

**www.alamoministries.com**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료들을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여 사용하실 경우, 하기의 저작권 내용과 등록번호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Copyright 1980, 1990, 2000, 2001 All rights reserved  
 World Pastor Tony Alamo ® Registered 1980, 1990, 2000, 2001

### 로스앤젤레스 교회

13136 Sierra Hwy., Canyon Country, California 91351

**예배시간:** 매일 저녁 8:00시, 일요일 오후 3:00시와 8:00시

**매 예배 후 식사제공**

**교통편:** 할리우드 불리바드와 하이랜드 애비뉴 코너

(Hollywood, California)에서 예배장소까지 무료 교통편

**출발시간:** 매일 밤--6시 30분, 일요일--오후 1시 30분, 저녁 6시 30분.

그 이외의 예배장소: 뉴욕,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Fort Smith), 아칸소주 텍사카나(Texarkana)에서 남쪽으로 15분 떨어진 곳  
 정확한 예배장소와 시간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바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입니다.<sup>68</sup> 알라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것을 전달하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본 문헌은 그 진정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sup>69</sup> 다 읽으신 후,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The Holy Alamo Christian Church is a division of Music Square Church, Inc.)